

# 평신도



위의 앱은 모두 무료이며 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구별, 단체별 앱 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 인사 인사말
- 소식 행사일정
- 특집 대전교구 시노드
-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가 된다

- 나 **늘**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의 신앙 선조
- 순 **례** 도양골에서 온 편지 나의 기도
- 이야기 이주사목 위원회의 활동 주보성인과 나

-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평신도 양서
- 소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2019년 여름  
계간 64호

# 평신도

## CONTENTS

- 02 인사말 /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회장
- 05 7~9월 행사일정 / 염지유
- 10 평신도가 본 대전교구 시노드 / 오만진  
14 대전교구 시노드 / 유흥식 교구장 인터뷰
- 19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25 평신도가 뵈다 / 김주완
- 31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 송란희  
34 나의 신앙 선조 / 김승욱
- 38 도양골에서 온 편지 / 김영숙  
41 나의 기도 -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기 / 박준형
- 45 이주사목 위원회의 활동 / 최태교  
50 후보성인과 나 / 노희석
- 52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정성엽  
54 평신도 양서 / 김선동
- 56 교구평협 · 회원단체 / 염지유

---

**발행인**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편집위원** 김문태 힐라리오, 김병호 토마스 아퀴나스,  
김선동 루카,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서희정 마리아,  
송란희 가말라, 최태교 안드레아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표지** 대전교구 시노드 사진  
(대전교구 홍보국 제공, 김영훈 바오로 편집)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

## 회장 인사말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과제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과제와 역할은 무엇이며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바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 찬미 예수님!

질은 신록의 새 옷을 입은 산처럼 한국평협 가족 모두가 예수성심을 닮은 초록빛 삶으로 채워지고 각 가정에도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큰 획을 그었던 1, 2, 3차 산업혁명에 이어 3년여 전부터 지구촌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농경과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지나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산업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자율주행과 무인운송, 바이오기술, 신경유전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발전 속에 진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학자들은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씩씩하고 있지만 이미 생활 속으로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들이 도전받게 될 것이며, 우리 인간의 삶을 절반 이상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유망 직종에 대한 대변혁은 물론 종교 영역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우리가 갖지 못한 지능과 힘, 초자연적 능력을 소유한 신에 의지해 많은 절망과 고난을 극복해 왔지만 인공지능이 마치 신의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순간 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들이 교회에 제기될 수 있고, 그것은 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대 충격을 주며 AI 열풍의 출발점인 '알파고'의 경우나 AI 수준이 국가 바둑 위상에 직결될 만큼 인공지능 바둑대회도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상황이며 우리가 정보의 부를 누리는 사이에 손으

로 조작하는 휴대전화가 마치 여섯 번째 감각이 되어 편리함 이상의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공지능은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대신할 것이며, 방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등 때로는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것에서까지 그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과제와 역할은 무엇이며,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바에 교회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준비해서 무한도전에 응전해 나아가야만 교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에 직면해 있는 흐름 속에서 교회가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를 문명 속의 종교로 생각하기 힘들 것이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할까?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용과학의 발달로 인해 설렘과 불안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공지능을 위시한 새로운 기술의 급진적인 변화가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게 되고 인간 본성의 뿌리까지도 변형시킬 수 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기에 생명을 더욱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으며 그렇기에 오히려 진리의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의 발달로 더 풍족한 세상을 누리면 누릴수록 마음의 공허함은 커질 수 있기에 "High Tech 시대에는 High Touch가 답이다."라는 인간의 본질을 어루만질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신의 존재가 부정되고 신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수록 종교를 더욱 갈망하게 되며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빠른 변화만큼 커진 불확실성과 불안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대안을 갖고 채워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시기를 놓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거나 알고도 고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 모를 일입니다. 이것을 나무의 뿌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저 이파리 몇 개만 시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가 썩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 공동체성 회복과 협력사목, 관계사목 활성화를 위해 동행하는 시노드적 교회의 모습으로 빨리 변화되고 쇠신되어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교세 현황(2018.12.31.기준)에서 주일미사 참여자는 신자 총 수의 18.3%(총 인구 대비 2%)이며, 한 해 동안 세례 받은 신자가 16.4% 감소하고, 성소 부족 현상 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를 앞질러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 이탈 현상의 가속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급속한 변화가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의식과 가치관을 기계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이라는 것은 편리성에 치우쳐 산다는 의미인데,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 교구평협 행사 일정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전반기 연수회

- 일시 : 7월 5일(금)~7월 6일(토)
- 장소 : 춘천 가톨릭회관
- 문의 : (02) 777-2013

##### ▶ 후반기 연수회

- 일시 : 9월 20일(금)~9월 21일(토)
- 장소 : 제주교구 성이시돌피정의집
- 문의 : (02) 777-2013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천주교 서울순례길 걷기

- 일시 : 7월 13일(토) 오후 3시
- 코스 : 2코스
- 문의 : (02) 777-2013

##### ▶ 평신도 아카데미 <공의회 과정>

- 일시 : 9월 2일(월)~11월 25일(월)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 문의 : (02) 777-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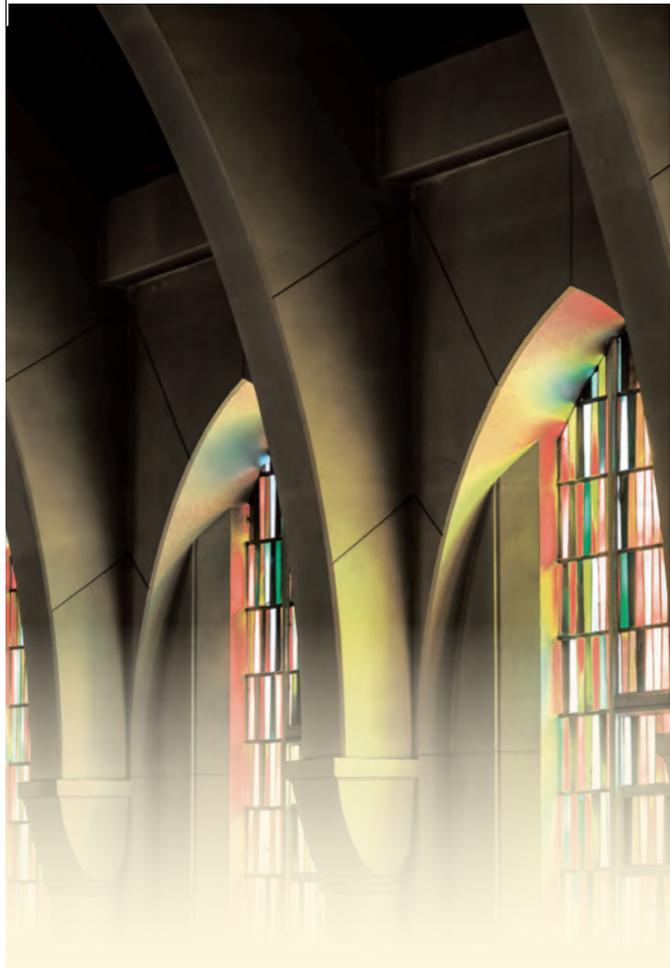
####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서부지구 사목회장단 & 교구평협 도보 순례

- 일시 : 7월 27일(토)
- 장소 : 포천 성지

##### ▶ 춘천교구 평협 하반기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

- 일시 : 8월 23일(금)~8월 24일(토)
- 장소 : 춘천 가톨릭회관



## 교구평협 및 회원단체 7~9월 행사 일정

교회 안에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신자들은 지체로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데 이를 불편하다고 느끼고 부대끼며 관계 형성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자 익숙해져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어울리고 섞이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혼밥, 혼술을 하며 핸드폰이나 컴퓨터 안에서 혼자 즐기는 문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첫번째 과제는 공동체성 회복과 협력사목, 관계사목의 활성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의 사목은 시노드 사목”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하는 시노드적 교회의 모습으로 빨리 변화되고 쇄신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신원 의식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가정은 가정대로 일치의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쓰고 교회 안에서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며 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성 회복에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공동 합의성’의 여정은 제삼천년기 교회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길이며 공동체성 회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평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신도사도직연구소에서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갖는 포럼의 주요 주제를 ‘Synodalitas’(공동 합의성 - 공동 식별)로 선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전교구에서 3년 5개월여 동안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준비하며 새로운 ‘희망’과 ‘다짐’의 열매를 맺어 ‘매력을 발견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마련한 ‘대전교구 시노드 최종 문헌’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르타’보다는 ‘마리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외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 정작 중요한 복음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Strong AI 초연결 사회와 문명 전환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본당 숫자를 늘리거나 교회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영적 성숙과 영혼 구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신앙의 보호막 역할과 진리의 씨앗이 담긴 교리와 생명 문화, 도덕적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회 내 융합 콘텐츠 개발이라고 여겨집니다.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청소년 사목을 위해서도 문화 사목과 눈높이 교육을 위해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고 특히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학교 교육 과정이나 수도회 수련 과정 또한 현실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대안과 함께 무엇보다 우리 평신도들도 하느님께 기초를 둔 영생의 희망과 성령의 현존에 대한 신앙적 믿음이 중요하며, 인간 중심의 보편적 가치와 공동선을 위한 대화, 경청, 성찰, 식별을 통해 신앙 감각과 영적 힘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주님과 자애로우신 성모님의 전구에 의탁하며 다 함께 지혜를 모아 피할 수 없는 변화, 쇄신의 성장통과 미래의 불안, 위기를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 가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정진해 나갑시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 마라.”(마르 6,50),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 명도학당 2학기 개강

- 일시 : 9월 9일(월)
- 장소 : 춘천 가톨릭회관

▶ 중부지구 사목회장단 & 교구평협 도보 순례

- 일시 : 9월 28일(토)
- 장소 : 홍천성당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평신도위원회 · 평단협 상임위원 성지순례

- 일시 : 8월 24일(토)
- 코스 : 신나무골성지 → 군위성당 →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 교구 도보 성지순례

- 일시 : 9월 21일(토)
- 장소 : 진목정 성지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평협 제2차 상임위원회의

- 일시 : 9월 27일(금)
- 장소 : 마산교구청 4층 회의실
- 문의 : (055) 249-7114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사목임원 단체장 하계연수

- 일시 : 7월 7일(일)~7월 8일(월)
- 장소 : 농은 수련원

▶ 4차 상임위원회 및 교구장 평협 방문

- 일시 : 9월 7일(토)
- 장소 : 교구청 대회의실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 · 여성위원회 임원수련회

- 일시 : 6월 14일(금)~6월 15일(토)
- 장소 : 소록도성당
- 문의 : (062) 236-3004

▶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 성지순례

- 일시 : 9월 28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 담양 일원
- 대상 : 1,000여 명(교구장, 사제, 수도자, 평신도)
- 코스 : 담양성당 → 천주교공원묘원(담양 월산면)
- 문의 : (062) 236-3004

회원단체 행사 일정

▶ 마리아사업회

▶ 여름 마리아 폴리 - 대전 서부, 세종, 계룡, 논산

- 일시 : 7월 19일(금)~7월 21일(일)
- 장소 : 서천유스호스텔
- 접수기간 : 6월 1~20일
- 접수문의: 박정희 010-9414-5507  
장경선 010-4440-1839

▶ 여름 마리아 폴리 - 대전 동부, 금산

- 일시 : 7월 26일(금)~7월 28일(일)
- 장소 : 무주 태권도원
- 접수기간 : 6월 1~20일
- 접수문의 : 오희원 010-8295-1245  
양미자 010-9125-6326

▶ 여름 마리아 폴리 - 관악, 동작, 서초

- 일시 : 8월 9일(금)~8월 11일(일)
- 장소 : 인제 만해마을
- 접수기간 : 6월 24일~7월 7일

- 접수문의 : 김현숙 010-7190-9045  
최성근 010-5858-8626

▶ 여름 마리아 폴리 - 영남지역

- 일시 : 7월 26일(금)~7월 29일(월)
- 장소 : 경주 코오롱호텔
- 접수기간 : 6월 24~28일
- 접수문의 : 남 (053) 523-4822  
여 (053) 651-2739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한일 가톨릭의료기술 협력 협정 30주년 운영위원회

- 일시 : 7월 19일(금)~7월 20일(토)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몽골 해외 의료 봉사

- 일시 : 8월 3일(토)~8월 10일(토)
- 장소 : 몽골 다르항 제1병원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간호영성세미나

- 일시 : 8월 10일(토)
- 장소 : 서울성모병원 대강당

▶ 한국가톨릭간호사회 전국피정 및 협회 4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9월 21일(토)~9월 22일(일)
- 장소 : 의정부 한마음수련원

▶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 양성팀 연수

- 일시 : 7월 1일(월)~7월 4일(목)
- 장소 : 울릉도 천부성당 영성센터
- 문의 : (054) 791-0080

▶ 2019 하계 끈비벤자

- 일시 : 8월 19일(월)~8월 21일(수)
- 장소 : 목포 산정동성당 레지오 기념관
- 문의 : 010-8807-7182(전국총무 김기환)

▶ 국제 세나클

- 일시 : 9월 1일(일)~9월 14일(토)
- 장소 : 로마 카노시안 수녀회 바키타 하우스
- 문의 : 010-8807-7182(전국총무 김기환)

▶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

▶ 신임 군종사제 연수 및 군인 신학생 피정 위문

- 일시 : 9월 17일(화)~9월 19일(목)
- 장소 : 의정부 한마음수련원
- 문의 : (02) 727-2404

▶ 군인주일 회원 모집 워크숍

- 일시 : 9월 23일(월)
- 장소 : 군종교구청
- 문의 : (02) 727-2404

▶ 일정은 주최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집



특집 관련 사진은 대전교구 홍보국에서 제공하였습니다.

## 대전교구 시노드

대전교구 시노드가 2019년 4월 27일 솔피성지 폐막미사를 마지막으로 3년 5개월의 대장정을 마감하였다. 시노드는 크게 교구 시노드와 주교 시노드로 구분된다. 주교 시노드는 교황이 전 세계의 주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고, 교구 시노드는 교구장 주교가 해당 교구의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등 교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대표자인 대의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회의이다. 시노드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시노드 의장에게 제출되며 의장은 이를 반영한 최종 문헌을 반포하게 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시한 평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함께 걸어감'이라는 시노드의 정신을 살려 진행된 대전교구 시노드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와 쇄신의 여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숙려하는 기간을 가졌다. 2015년 12월 8일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포하신 '자비의 희년'과 함께 교구 시노드를 시작하면서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1베드 4,10)라는 주제 성구를 선택하여 '서로를 위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시노드는 초기 약 7개월간의 기초단계를 거쳐 준비단계, 시노드 본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 안에서 시노드 정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교회활동의 다양한 주역들과 9개의 분과(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전례, 신심활동, 본당사목, 교회운영, 가정생명, 사회복음화)로 정하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대화와 설문 및 전문가의 분석, 본당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교회의 현실을 조명하고 공유하는 시간과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였다. 사제와 800명의 대의원이 마지막 회의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노드 본회의 결과는 모든 토론 내용을 집약한 『최종 건의안』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의안 56건과 231개의 세부과제를 담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는 사제와 신자 평생 교육, 소통과 친교, 소공동체 교육, 사목 연구소와 『교구 사목 지침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 등이다. 교회다운 교회, 사제다운 사제,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 함께 나아갈 다양한 길을 제시하면서 교구 제도의 변화, 변화된 삶을 제시하는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까지 담고 있어 앞으로 교구 사목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특집에서는 평신도 입장에서 참여한 교구 시노드에 대한 소감과 교구 시노드를 진두지휘한 유홍식 라자로 대전교구장 주교의 인터뷰를 신는다. **(편집자 주)**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1베드 4,10)

특집

## 대전교구 시노드

# 평신도가 본 대전교구 시노드

오만진 아가비도 / 전 천주교 대전교구 평협 회장



18세기 후반의 우리 조선 사회는 신분제도로 인해 차별받고 무시당하며 생활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때에 천주교의 평등사상은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신 서양문물과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승훈은 1784년 중국에 들어가 예수회의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천주실의』를 비롯한 많은 서적들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다.

1784년 조선의 천주교는 서울 수표교 부근에 교회가 최초로 설립됨으로써 점차 우리 신앙의 고향인 충청도 내포지역에 전래되어 여사울에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솔피, 당진, 청양 등지에 교우촌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해왔다. 당시 조선

은 유교 중심 사회에서 조상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천주교에서는 금지함으로써 박해가 일어나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대전교구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순교자와 신앙의 고향인 성지를 많이 가지게 되었다.

오늘의 대전교구는 1948년 서울대목구로부터 대전지목구로 분리되면서 파리외방전교회의 라리보 아드리아노 주교님께서 교구장 서리를 맡게 되었다. 분리 당시의 교세는 성직자 19명, 신자 수 1만 8천명, 성당 13개로 매우 빈약하였으나 1958년 대전대목구로 된 데 이어 다시 1962년 대



▲ 시노드 폐막미사 입장식



▲ 시노드 유공자 시상

전교구로 승격되었고 교구장에 황민성 베드로 주교님, 경갑룡 요셉 주교님이 맡아 오셨고 현재는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께서 열정적인 사목활동을 하고 계신다.

현재는 신앙의 못자리인 내포 지역을 포함한 대전과 충청남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구역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구는 현재 성직자 383명, 신자 33만 명, 본당 수 144개인 교구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오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교구 설립 이후 70년 동안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신부님을 비롯한 수도자, 평신도들의 기도와 희생, 봉사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하였으므로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196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구상에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에서 무역대국이 되어 잘사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눈부신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져 왔다. 이와 같이 경제와 생활수준은 상승하였으나 우리 사회는 고도의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만연으로 혼 혼한 정이 메말라 가고 각박해지는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부분도 있어 한편 서글퍼지기도 한다. 우리 천주교회도 경제발전과 병행하여 교세 또한 외적으로 많이 성장하였다. 다른 나라 신자들의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이제는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

대전교구 유 라자로 교구장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과 우리 교구 정체성의 뿌리인 순교영성을 나침반으로 삼으시어 교구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시고자 2015년 12월 8일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포하신 ‘자비의 희년’ 시작과

함께 대전교구 시노드 개최를 선포하셨다.

시노드 회의 발족과 동시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구성된 기초위원 24명을 임명하였으며 필자도 기초위원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평신도로서 시노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원회 소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 사양하였으나 시노드 전반에 대하여 배워가며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부족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우선 시노드(라틴어:Synodus, 영어:Synod)란 사전적 의미로는 ‘대의원회의’로서 그리스어로 ‘함께 걸어감’이라는 뜻을 갖는다. 교회법에서는 “교구 대의원 회의는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의를 위하여 규범에 따라 교구장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개별교회의 선발된 사제들과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회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초대교회 이래 교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던 사제단 회의가 모태가 되어 공의회와 동의어로 사용되다가 13세기 이후 공의회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급교회회의와 공의회를 결정할 각 교구에서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교구 차원의 회의인 시노드와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는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교구장 자문기구의 성격을 띤 회의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후 주교 시노드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면서 교구 시노드와 주교 시노드로 나누어지면서 교구 시노드는 성직자 중심에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공의회 이후 교회는 세상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의 교회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으며 한국 교회는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미사 전례 방

법의 변화는 물론 평신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 교구 시노드는 주제 성구를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로 선택하고 기초단계, 준비단계, 본 회의단계 순으로 진행했으며 각 단계에서 위촉된 위원은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 동등한 자격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경청하면서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은 그동안 교회 내에서 대부분 수직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회의 처음에는 회의 진행이나 발언에 주저도 하였으나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발표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기초단계(2015. 12. 8.~2016. 6)에서는 위원장 주교님을 포함한 성직자 14명, 수도자와 선교사 2명, 평신도 9명이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교구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교구에 걸맞은 방법을 연구함과 동시에 전체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준비단계(2016. 7~2017. 하반기)에서는 사제 64명, 수도자 20명, 평신도 44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 128명이 성직자 분과, 수도자 분과, 평신도 분과, 전례 분과, 신심활동 분과, 본당사목 분과, 가정생명 분과, 교회운영 분과, 사회복음화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였으며 각 본당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각 분과에는 1개월에 2~3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하여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 평신도,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교구 내의 134개 본당을 대상으로 한 그룹 46개 본당은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의식을 조사하고, 한 그룹 44개 본당은 쉬는 교우를 대상으로 서면이나 방문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한 그룹은 교구 내 기관을 포함한 44개 본당에서 주임신부님과 모든 신자가 참여한 가운데 본당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발언하여 교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진단하였다. 교회 내에서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토의해 본 경험이 없는 평신도로서는 어리둥절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우리나라 가톨릭 역사상 이렇게 대단위로 대상자별로 설문문을 통하여 의식을 조사하고 각 본당에서 현실을 진단한 것은 대전교구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준비기간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은 시노드 의제를 선정하는 데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교회의 사목방향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소중한 쓰이고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신자들의 미사 참여율이 떨어지고 여러 이유로 본당에서 소재 파악 및 교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쉬는 교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각 본당의 시노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설문조사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이 자료들은 쉬는 교우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쉬는 교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목대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회의단계(2017. 12. 8.~2019. 4. 27)에서는 시노드 의제로 ‘순교를 바탕으로 한 사제, 평신도’로 정하고 사제 261명, 수도자 44명, 각 본당에서 사목회장을 비롯한 평신도 대표 530명의 대의원이 사제 3분과에 4팀, 평신도 3분과에 4팀으로 나누어 의안 집을 토대로 하여 9차례의 분과회의와 5차례의 전체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면서 교구장님께 보낼 건의안을 토의, 발표하고 확정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의 중앙위원회와 수시로 분과별 임



▲ 시노드에 참가한 사제, 수도자, 평신도

원회의를 하면서 분과별 의제의 조정과 회의의 합리적인 운용을 모색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제의 쇄신 없이는 교회의 쇄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신자들 또한 교회에서 사제가 변화하면 교회가 변화한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하였다. 특히, 사제분과의 한 팀은 사제들만으로 구성되어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뇌에 찬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본회의 대의원회의는 사제분과에서는 사제직과 영성 생활, 사제직무, 사제직무와 성소계발에 대하여 건의안을 작성하였고 평신도분과에서는 평신도의 신원과 사명, 신앙공동체인 가정과 평신도, 교회 공동체와 평신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건의안을 확정하여 본회의 의장이신 유라자로 교구장님에게 최종 문헌을 봉정하였다.

교구장님께서 2019년 4월 27일 솔피성지의 시노드 폐막미사 중 최종 문헌에서 건의안에 대한 응답으로 1) 사제와 평생교육 2) 소통과 친교-성직자국 신설 3) 소공동체 교육 4) 사목연구소

설치와 교구 사목지침서 5)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시고 모든 건의안을 앞으로 교구 사목의 여정에 이정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폐막미사에 일어난 해무리

폐막미사 중 교구장님의 최종 문헌 발표 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해무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미사에 참여한 3,000여 명의 신자들이 환호하였다. 맑은 날씨에 해무리가 일어나는 것을 필자는 본 적이 없

다. 미사 중의 해무리가 시노드 3년 5개월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각 성당의 매일미사에서 시노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바친 신자들의 정성 어린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인 것 같아 우리 모두는 기뻐하였다.

대전교구 시노드를 통하여 얻어진 모든 건의안들이 유용하게 활용되어 하느님 뜻에 맞는 교구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글을 맺는다. 

특집

### 인터뷰

## 시노드를 마친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



일시 2019년 5월 2일(목) 오후 3시  
장소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 집무실  
대담·정리 권영빈 편집장

평신도 잡지는 지난 5월 2일 오후 3시 최근 솔피성지에서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신자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12월 8일부터 시작한 시노드의 폐막미사를 봉헌하고 『최종 문헌』을 반포한 대전교구 제4대 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을 만났다. 다음은 시노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대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권영빈 가브리엘 편집장(이하 편집장) • 성공적인 시노드의 폐막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대전교구에서 시노드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유흥식 라자로 대전교구장(이하 교구장)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4년 8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를 개최하는 대전교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황님의 한국 방문은 큰 은총이었습니다. 4박 5일 한국에 계시는 동안 대전교구에 이틀 동안 머무셨습니다. 많은 이들을 만나시면서 큰 감동을 주셨죠. 교황님의 말씀과 보여주신 일거수일투족(행동 하나하나)은 우리 신자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큰 은총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은 되돌려드려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삶의 모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위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서 식별하여 “교구 시노드”를 개최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길,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찾고 싶었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위하여 저는 시노드 시작부터 “교구의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편집장 • 시노드를 진행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교구장 • 3년 5개월의 여정이었습니다. 시노드는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가정, 교회를 이루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갑니다. 시노드를 살면서(과정) 시노드를 계속하였습니다.

교구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 함께하는 변화와 쇄신의 여정인 시노드는 2015년 5월 7일 사제평의회에서 시노드 개최 의지를 표명하였고, 2015년 12월 8일(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자비의 희년 개막과 시노드 개최 선포 미사에서 공식적으로 시노드 개최를 선포하였습니다. 시작 이후 처음 약 7개월의 ‘기초단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우리 교구에서 처음 실행하는 시노드에 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노드에 관한 자료들을 함께 학습하면서 기초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그리고 시노드 본회의로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 이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노드 정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교회활동의 다양한 주역들과 분야들을 9개의 분과(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전례, 신심활동, 본당사목, 교회운영, 가정생명, 사회복음화)로 정하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7월 5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지인 솔피성지에서 시노드 ‘준비단계’를 시작하며 ‘시노드 준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이 준비단계 기간에 우리는 기초단계에서 설정한

9분과의 의제 설정에 관한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본당에서는 ‘전신자 의식 조사’, ‘쉬는 교우 조사’, ‘본당 진단’이라는 주제로 하느님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사제, 신학생, 수도자, 사무장, 교구직원, 주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가정, 생명’을 주제로 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본당에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는 은총과 더불어 신앙생활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나누는 ‘본당 한마당’이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준비단계는 모든 본당과 기관의 하느님 백성들과 시노드 위원들이 활동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교회의 현실을 함께 바라보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누어진 대화와 토론과 설문조사 결과들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종합되었고, 이 안에 우리 교구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구 시노드가 선포된 지 2년이 되는 2017년 12월 8일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토대로 ‘시노드 본회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본회의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자료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



▲ 시노드 폐막미사 중 성체 거양



◀ 편집장과 인터뷰 하는 대전교구장

고 토론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본회의에서 다룰 의제에 대하여 고심하면서 ‘순교’, ‘사제’와 ‘평신도’라는 세 가지 주제를 시노드 본회의 ‘의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교구의 모든 사제를 포함한 850여 명의 대의원들이 마지막 회의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간의 모든 토론 내용을 집약한 『최종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 시노드 개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교구의 모든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장** · 시노드에 참여한 사제, 수도자, 평신도의 연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이를 수행한 조직 구성과 평신도들을 위해 특별히 고려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 · 시노드에는 교구에 속한 모든 사람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노드 본회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제 250여 명, 남녀 수도자 50여 명, 평신도(젊은이 포함) 500여 명, 교구장 주교가 임명한 대의원 50여 명 등 총 850여 명의 규모입니다. 본당 주임 사제, 본당 회장, 대의

원 2인(최소 1인은 여성) 등이며 각 대의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번 시노드 대의원의 2/3가 평신도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평신도들이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출석을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본당에서는 “본당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본당의 사목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매우 유익한 체험이었습니다.

**편집장** · 최종 결의안에 건의안 56건 및 세부 과제 231건이 발굴되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구장** · ‘순교’, ‘사제’와 ‘평신도’라는 세 가지 주제를 시노드 본회의 ‘의제’로 선택하였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폭넓은 주제이지만, 우리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나누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신 『복음의 기쁨』과 우리 교구의 풍부한 신앙의 보물이며 유산인 ‘순교 영성’을 나침반

으로 삼자고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교구의 모든 사제를 포함한 850여 명의 대의원들이 총 6개 분과 22팀으로 팀당 35명~40명의 위원들이 마지막 회의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간의 모든 토론 내용을 집약한 『최종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 최종 결의안에 건의안 56건 및 세부 과제 231건 등은 계속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과 시급성을 따져 차근차근 실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편집장** · 이번 시노드에서 얻은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교구장** ·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서로를 하느님의 소리를 경청하려고 노력하였고, 서로를 경청하면서 성령의 소리를 식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교구의 하느님 백성들이 동등하게 모여 대화하는 체험을 통해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편집장** · 미래의 평신도 지도자가 될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 고려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매체가 사이버 세상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구장** · 제가 지난해에 “젊은이, 신앙 성소 식별”을 주제로 개최된 세계 주교 시노드에 참석하였습니다. 큰 체험이었습니다. 이미 젊은이 대표들과 만났고, 청소년 전담 신부님 및 젊은이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였습니다. 교구의 큰 결정을 하는 데 젊은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각 본당의 청소년 분과장은 젊은이가 맡도록 하였습니다.

**편집장** · 시노드에서 도출된 건의안 및 세부 과제의 실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구장** · 이미 최종 문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노드에서 나타난 하느님 백성들의 건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구



▲ 시노드 폐막미사(2019년 4월 27일, 솔위 성지)

만남

###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봉사요?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몫을 해야죠^^”



신동열 리카르도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대담·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지난 4월 13일 전남 고흥 소록도성당에서 개최된 한국평협 춘계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대도시가 아닌 남녘 끝 소록도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도 특별했지만 평생을 천형의 섬이라는 소록도에서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특히 행사를 준비한 신동열 회장을 비롯한 광주평협 일꾼들의 배려와 수고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바쁜 일정을 쪼개 인터뷰 요청에 답해주신 신동열 회장께 깊이 감사드린다.

#### ❖ 소록도성당에서 한국평협 춘계 상임위원회 개최하느라 애쓰셨지요.

한국평협 춘계 상임위원회회의를 천형의 섬이라 불리던 소록도에서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사랑과 봉사정신을 보여주신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배우고 알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도 좋았다고 봅니다.

두 분은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한 낮은 섬김의 참 봉사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의학을 전공한 이들로조차 두려워 다가가지 못한 한센인들을 맨손으로 치료하고 돌보셨지요. 모국인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40여 년 동안 소록도에 많은 치료 시설들을 짓고 의약품을 조달하셨습니다. 환자들을 보살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센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까지 하셨지요.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철십이 넘어 부담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달랑 편지 한



▲ 인터뷰 후 기념 촬영

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공생활을 하시면서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강조하셨고,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저도 시대의 요청과 교황님의 뜻에 동참하면서 더욱 가난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구와 공동체가 되길 호소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사도 20,35)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 내적으로 더 큰 행복을 체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노드를 시작하면서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1베드 4,10)라는 주제 성구를 선택하였습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태 20,27)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더 많이 사랑하고 봉사하여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첫째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편집장**·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 시노드의 『최종 문헌』에 실린 내용들이 실천되면서 다함께 시노달리티(Synodality)의 정신이 완성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긴 시간을 할애하시어 교구 시노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조 및 조직도 개편할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5년의 교구 사목 방향은 시노드의 건의안을 실현시키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편집장**· 교구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시노드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의 사목은 시노드 사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이신 성삼위의 친교와 소통을 지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창조된 모든 인간 안에는 사랑이신 성삼위의 DNA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안에는 “이기주의”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바



▲ 광주대교구 봉사자 초대의 날 행사 때, 앞줄 맨 왼쪽이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옥현진 주교, 맨 오른쪽이 신동열 회장



▲ 신년하례회를 마치고 김희중 대주교, 옥현진 주교님과 함께했다. 앞줄 맨 오른쪽이 신동열 회장.

장 남기고 빈손으로 떠나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도움을 주신 김연준 프란치스코 이사장 신부님과 이창재 마카리오 연수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아낌없이 주고 빈손으로 가신 두 천사

✦ **마리안느, 마가렛님 노벨평화상 추천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도 전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해 1962년부터 2005년까지 43년여를 자원봉사자로 헌신하시다 빈손으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신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인류의 자산으로 삼고자 2017년 11월 23일 노벨평화상 추천 범국민추천위원회(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국내외 상영, 홍보관 운영,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 인스부르크 국제영화제 참가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전개해 왔습니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0년에 추천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5월 말 현재 47만 8천

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한국평협에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광주평협은 50년에 가까운 역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평협 자랑 좀 해주시죠.**

1968년 대전 대흥동성당에서 한국평협이 창립됐잖아요. 이듬해 5월 저희 광주대교구도 평신도 사도회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게 됩니다. 1972년 2월 27일 당시 한공열 대주교의 정식 인준을 받아 '사도연합회' 창립총회를 발족했지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평신도사도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1984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평협은 초창기에는 평신도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애썼고요, 차츰 봉사자들에 대한 연수와 신자들의 재교육 사업으로 사업의 중심을 이동해 왔지요. 또 광주라는 지역이 시대의 격변기에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광주평협도 도농교류, 생명, 환경운동 등 시대적 상황에 함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광주평협이 특히 봉사자 교육에 많이 애쓰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대교구는 김희중 히지노 교구장님의 사목비전인 '공동체성 회복과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가정, 본당, 지역의 복음화 순으로 사목중점사항을 설정하고 사목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광주평협도 교구장님의 사목지침 구현을 위해 교구 사목국과 함께 다양한 신앙교육을 통해 평신도들이 축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감사의 신앙을 살아가는 데 방향을 두고 있고요.

특히 우리 광주평협은 평신도 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길러내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10주 과정의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교육과정'이 그 핵심입니다. '지구별 사목협의회 직무연수'와 '본당 사목회장 직무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같은 교육들을 통해 본당과 단체에서 봉사하는 평신도들이 친교를 나누는 것은 물론 우리 평신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와 세상 안에서 자기 몫을 충실히 다하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교자 현양의 마음을 다지며 매년 실시하는 도보성지순례 행사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 사목협의회장 직무교육을 기획하다

✦ **평협 주도로 지난해 처음으로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평협에서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들을 교육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저 자신부터 본당에서 사목협의회회장의 직책을 맡아 봉사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구 차원의 체계적인 사목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없어 본당 신부

님의 역량에 의해 사목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신자들이 교회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사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당에서 사제와 평신도가 서로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이루고 의사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목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목협의회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평협은 사목협의회회장의 역할과 주님의 큰 일꾼으로서 신원과 사명을 일깨우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목협의회장 직무교육'을 기획해서 2018년 12월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본당 사목협의회회를 이끄는 회장의 직무와 역할, 사명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봉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지요.

✦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님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교육인 만큼 우리 교구 138개 모든 본당의 회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나누어 1차와 2차에 걸쳐(100여 본당 참석) 교육하는 등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교재에는 사목회장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구 현황과 사목정보, 그리고 강의 내용과 사목협의회회 역할 등을 실어 도움이 되도록 했고요. 강사진으로는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과 옥현진 시몬 총



▲ 지난해 9월 광주평협 주최 도보성지순례 행사에 함께 한 신동열 회장

대리 주교님께서 우리 교구의 미래상을,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이신 김길수 교수님과 서강대학교 최현순 데레사 교수님께서 교회 안의 평신도 역할에 대해 강의해 주시고 사목국장이신 김정용 베드로 신부님께서 사목평의회와 사목협의회장의 역할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 저희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6.3%가 사목협의회장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주제와 내용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주셨습니다. 특히 교구장님 사목교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과 함께 본당별 사목의 일치와 상호 간 정보교류, 나아가 교구평협과의 연대와 협조를 위한 나눔의 장이 마련된 것에 감사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사목협의회장으로서 위상과 책임을 통감하게 되었다는 말도 많이 나와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 **본당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신도 아카데미'도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요?**

평신도 아카데미는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사도직 활동을 충실하게 이끌어갈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총 10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에 교구청 대건



▲ 평주평협은 지난해 사목협의회장 직무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연수관 세미나실에서 열고 있습니다. 개강미사를 옥현진 총대리 주교께서 집전하신 뒤 우리 교구의 미래상에 대해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당 사목평의회 역할에 대해 교구 사무국장인 김정용 베드로 신부님이 강의해 주시고요, 평신도 사도직 사명,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본당 공동체성 회복, 청소년 친화적 본당 이루기, 21세기 가톨릭 평신도가 갖춰야 할 교양, 하느님의 축성과 생태영성살이 등이 주요 강의 주제입니다.

초청강사의 강의에 이어 참가자 간의 토론과 나눔으로 진행하는데,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교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올해 3기 수료생을 배출하게 되는데 교육 기간 내내 강사님들의 열의와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양과 자질을 갖추어 영적 성장과 함께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비마다 주님의 도우심에 의탁해**

❖ **평협의 활성화를 위해 애써 오신 얘기를 들으니 광주평협의 변화와 성장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끈 변화라기보다는 역대 선배 회장님들과 평협 임원들께서 교회의 가르침과 시대의



▲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광주평협이 주최해 열린 평신도아카데미 2기 수료생들

요구에 맞춰 특별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광주평협을 이끌어 주시고 잘해 오셨기에 이룬 변화라고 봅니다. 다른 봉사자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처음에는 광주평협 회장직을 수락하면서 큰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보내주신 광주평협의 임원 한 분 한 분이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해"(1베드4,10) 주시니 평협 활동이 그저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더불어 교구 사목국장인 김정용 베드로 신부님의 영적 지도와 존경스러운 가르침이 있어 광주평협은 함께하는 임원들 모두가 신앙생활의 보람과 의미를 찾고 일치를 이루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께서 언제부터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되셨는지요?**

제가 젊은 날 허리를 다쳐 인천 성모자애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하던 중 봉사에 애쓰시는 아름다운 수녀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모님 같은 모습이 또렷이 남아 퇴원하면 성당에 한번 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듬해인 1984년 5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방한하셨잖아요. 교황 성하께서 공항에 내리시면서 땅에 엎드려 입맞춤하시는 그 모습을 TV로 보면서 수녀님 생각이 떠올라 그 길로 집에서 가까운 공소(현 금암 본당)를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 김희중 대주교로부터 광주평협 회장 임명장을 받는 신동열 회장

전교회장님 도움으로 교리를 마치고 이듬해인 1985년 1월 13일 주님세례축일에 노안 본당에서 강길용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 세례를 받았습니 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본당에서 청년활동을 하면서 모태신앙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지요. 노안 본당에서 혼인성사를 받고 가정을 꾸려 1남 2녀의 자녀와 잘 살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16-18)라는 성구를 가훈으로 삶의 여정에서 고비마다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에 의탁하며 생활합니다.

❖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쁘고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지난 2014년 꽃동네 영성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뵈고 그 이듬해인 2015년 3월 한국교회 주교님들의 사도좌 방문 때 한국평협 대표단 일원으로 아내와 함께 베드로 대성당에서 시복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교황님을 알현했을 때입니다. 더구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을 마치시



▲ 한평 50주년 기념미사에 함께한 광주평협 봉사자들



▲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하는 기쁨을 맛본 신동열 회장

고 제게 성큼 다가와 손을 잡으시고는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그 거룩한 눈빛, 환한 미소와 자애 넘치는 모습에 저는 하느님 나라 신비를 미리 보는 듯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무 살 때 교황님의 모습을 보고 직접 공소를 찾아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골뜨기 청년이 30년 후에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여 직접 교황님을 만나 뵙는 큰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평협 봉사자로 축복받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평협은 내 존재의 이유”

❖ 평협 활동이 회장님께 주는 기쁨이나 보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광주평협 사무국장으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6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평협은 제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말 그대로 존재의 이유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평협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서 신앙인으로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어지는 봉사직을 회피하는 교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다양하고 전 교회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봉사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은 세상에서 뽑힌 당신 자녀들 가운데서 한 번 더 선택되어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요한 3.18)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쉬고 있는 교우들과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들 모두 스스로 세례 때의 은총을 상기하고 성찰과 회심을 통해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남

## 평신도가 된다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대담·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 박호란(테클라) 회장

우리는 ‘간호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백의의 천사’나 ‘나이팅게일’을 우선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박애 정신, 즉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병들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면서 복음 전파와 함께 간호를 실시하였을 정도로 간호는 유서 깊고 가톨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 간호사들로 조직되어 40년이 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의 박호란(테클라) 회장이 협회가 태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가 설립된 지 꼭 40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태동되었고 설립 목적은 무엇인지요?

1979년 5월 18일 창립되었으니 40년 되었네요. 당시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1978년 가을 국제가톨릭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atholic Committee of Nurses and Medico-Social Assistants : CICIAMS)에서 받은 서신을 성모병원 가톨릭간호위원회(현 간호사회)에 주셨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2월 5일 전국 17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했어요. 82개 병원으로부터 787명의 신자가 있음을 회신받고 가톨릭 부속병원의 100명을 더해 총 887명의 신자 간호사가 있음을 추산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5월 18일 전국 42개 병원에서 모인 회원 121명이 서울 명동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교육관에서 발기총회를 열고 이춘원 수녀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복음적 사도 정신을 기본 이념으로 교회 가르침에 따라 회원의 신앙심 함양과 친목을 도모하고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 1979년 5월 18일 발기 총회 미사와 초대 회장 이춘원(노르베르타) 수녀



▲ 2018년도 간호사회 영성 세미나



▲ 2018년도 간호대학생 연합 피정



▲ 2019년도 제41회 정기 대의원총회 및 피정, 제65회 전국이사회

✧ 간호사협회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가톨릭 신자로 교구 가톨릭간호사회를 통해 회원이 되는데, 현재 회원 수는 4,000명을 약간 넘습니다.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및 중앙이사회가 있어 협회의 중요한 모든 사항들을 여기에서 결정합니다.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은 각 교구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회계이사)과 교구의 회원 수를 50:1로 산출하여 정하고 총회는 연 1회 개최합니다. 전국의 회장과 중앙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그리고 협회 회장·부회장(2명)·이사(10명)·감사(2명)로 구성된 중앙이사회는 연 4회 이상 소집되고 있습니다. 이사 10명과 부회장 2명은 기획부, 선교부, 홍보부, 학술부로 나뉘어서 각기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전국 교구의 가톨릭간호사회도 회장단을 구성하고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간호사협회의 주요 활동을 들려주세요.

정기 대의원총회를 피정과 함께 1박 2일로 진행합니다. 원로 회원들을 초청하고, 중앙이사와 전국 14개 교구 대의원 1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주최하고 있는 전국 피정을 매년 1박 2일로 하고 있는데, 교구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간호 영성 세미나를 열어 간호사들의 영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영적 간호 실현을 위해 저명한 강사의 강의를 들읍니다. 전국의 가톨릭병원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도자를 대상으로 전국 간호 수도자 연수도 매년 1박 2일로 하고 있죠. 올해 처음 시도하는 '영 너스 영성 캠프'가 6월 2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10여 년간 전국의 가톨릭 신자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던 1박 2일의 전국 간호학생 연합 피정을 변경하여 병원 입사한 지 3년 정도의 신규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1일 피정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기획이죠. 부활 즈음에

는 중앙이사들이 원로 회원들과 성지를 순례하며 선후배간 우의를 도모하고 협회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가을에는 의료협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타 가톨릭기관과의 교류 및 이사들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기회도 갖습니다.

✧ 지금까지 해 오신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1989년 2월에 제가 협회 이사로 처음 선출되어 총무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해 5월 제19차 세계간호사대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ing : ICN)가 국내 최초로 서울에서 열렸는데, 참석한 전 세계 간호사들에게 협회 홍보를 위해 코엑스에 부스를 설치하고 성물 전시 및 판매를 하고, 논현동 성당에서 김창석 신부님 집전으로 환영 미사와 파티도 열었습니다. 새남터와 절두산을 연결하는 성지 순례도 했고요.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이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잘해냈는데, 지금도 협회를 위한 첫 봉사로서 힘들고 정신없이 바빴던 일이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총무이사로 수고한 제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일이 매우 많고 개인적으로도 중차대한 일이 앞에 있었으나 순명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맡았어요. 회원 수가 많지 않았던 그 시절, 피정을 가면 각 교구의 낯선 회원들과도 어울려 밤을 지새우며 신앙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떤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이나 워터탑 눈치로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며 숨어서 기도 모임을 하고 남 모르게 신자 간호사들끼리 모임을 갖는다는 겁니다. 저는 가톨릭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터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백에 놀랐지요. 한 발짝만 내디디면 성당에 닿는 제 직장과 제 일터를 가톨릭 기관으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어요. 지금까지 틈틈이 성체조배와 평일 미사를 드리는 저의 신앙이 그때



▲ 2018년도 간호 수도자 연수



▲ 2018년 중앙이사들의 갈매못 성지 순례



▲ 1989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세계간호사대회(ICN) 총회와 환영 미사 후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총무이사직 봉사를 통해 보다 깊은 신앙생활로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최근에 끝난 큰 규모의 행사나 조만간 치를 행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피정은 언제나 아름답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만 작년 6월 23~24일 부산교구 가톨릭간호사회가 주관한 전국 피정은 특별히 은혜로웠습니다. 300여 명 가톨릭 간호사들은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는 주제로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부산 해운대의 아르피나에서 1박 2일을 뜨겁게 지냈습니다. 주교님 강의로 시작된 피정은 참석자 모두가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배려 깊게 준비되었고, 조영만(요한 세례자) 지도신부님께서 부산교구 간호사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100일 동안의 기도를 책으로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간호사를 위한 지도신부님의 사랑과 간호사회 발전을 위한 열정을 한껏 느낄 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피정은 서울대교구 가톨릭간호사회 주관으로 9월 21~22일 의정부 한마음수련원에서 진행할 예정



▲ 2018년 6월 23~24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피정 기념

입니다. 주제는 '보시니 참 좋았다'로 정했고, 전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할 듯합니다. 이 피정 전에 큰 행사가 또 하나 있는데, 8월 10일 서울 성모병원 대강당에서 간호 영성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간호사들에게 가톨릭 신자 간호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돌아보고 더 높은 영성을 함양하며 질적으로 높은 영성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영성 강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죠.

❖ **혹시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연계하는 활동도 있나요?**

사단법인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협회는 의료협회 내의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와 간접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전국 가톨릭 의료인과 의료 관계인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단체로,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어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총회와 세미나 및 세계 병자의 날 행사 등에 참가하고 있고, 매년 시행하는 몽골과 필리핀 해외 의료 봉사에도 간호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 **국제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립 직후 CICIAMS 가입을 준비하여 3년 만인 1982년 12월 4일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세계총회는 4년마다, 아시아지역 회의는 2년마다 열리는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제 회의비 납부 현황으로 봐도 우리는 최고 범주의 모범 회원입니다. 1985년 아시아지역 지역회의(싱가포르), 1986년 세계총회(포르투갈



▲ 2018년 9월 4~7일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제20회 국제가톨릭간호협의회(CICIAMS) 세계대회와 한국 참가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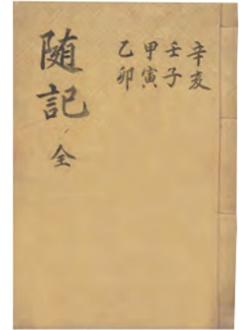
리스본) 참석을 시작으로 1990년 뉴욕, 1993년 일본 나고야, 1997년 태국 등 CICIAMS 회의에 참석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18개국 281명이 참석한 제20회 CICIAMS 총회와 세계대회에 우리 협회에서 18명이 참석하여 세계 가톨릭 간호사들과 뜻 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향후 간호사협회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 회원은 대형 병원이나 가톨릭병원 간호사들이어서, 소규모 병원과 보건 교사, 간호대학 및 보건소 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 수 정체로 회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젊은이 특성상 개인 활동을 선호하고 단체 가입이나 단체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열심히

##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하느님의 종'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

글·정리  
송란희 편집위원



▲ 『수기』

2017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대한 시복자료집 제1집을 간행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는 모두 평신도입니다. 자발적 신앙 공동체를 세운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은 오늘의 우리 평신도에게는 언제나 모범 중의 모범입니다. 이에 자료집의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게재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순교 영성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내포(內浦)의 사도”

지난 2014년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발표회에서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다. 1791년 내포 지역에서 일어난 천주교 박해의 실상이 기록된 자료에 대한 소개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수기(隨記)』는 충청도 관찰사 박종악(朴宗岳, 1735~1795)이 임금(정조)과 주고받은 편지를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필사본이다.

이 자료가 교회 안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내포의 사도’라고 알려진 이존창(李存昌, 1759~1801) 루도비코 곤자가가 활동하던 시기 충청도 천주교회의 여러 정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있던 이존창의 신분, 출생지, 입교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주요한 자료로 평가되었다.

『수기』에는 총 105편의 편지가 실려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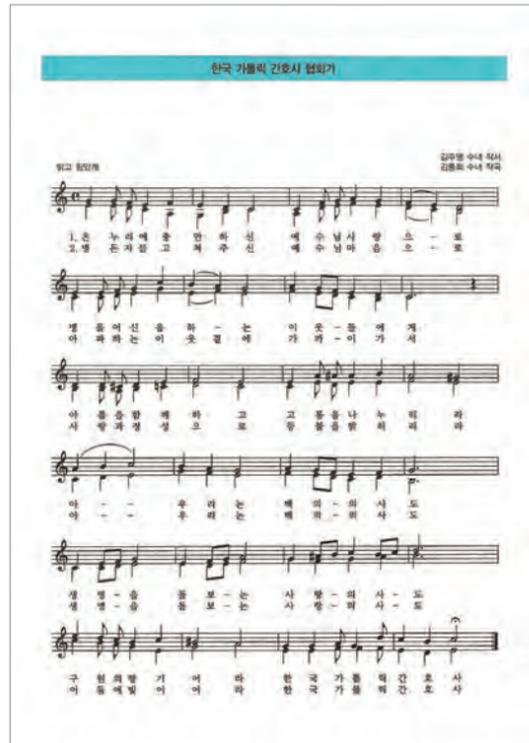
가운데 1791년 11월 20일부터 1792년 1월 3일까지 임금에게 보낸 10통의 편지에는 천주교에 관한 내용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때는 신해박해(진산사건)의 여파로 천주교 확산에 대한 정부의 경계가 매우 날 서 있는 상황이었다. 박종악은 1792년 12월 2일 편지의 별책에 “대개 이존창은 본디 신창(新昌) 성덕산 집안의 사천(私賤)입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홍낙교와 홍낙민 형제와 함께 제법 과거 공부를 익혔는데 가장 먼저 사술(邪術)에 몰들어 전념하여 학습하고 힘을 다해 미혹시켜 친한 사람은 요사하고 허탄한 말로 꼬드겨 따라서 배우기를 권하였습니다. 따라 배운 사람들이 깨우치지 쉬운 글을 뽑아 한문과 한글로 베껴 전하니, 점차 널리 알려져 따르는 사람이 날마다 찾아왔습니다.”라고 기록해 놓았다.

활동하던 회원이 은퇴한 후 그 공백을 메울 젊은 회원이 없으니 회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회원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데, 은퇴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 확대와 회칙 정비 등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힘들고 바쁜 병원 업무 가운데에서도 더욱 열정적으로 신앙심을 키우고 영성을 높이는 기회를 회원들에게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립 40년을 맞이하였고 50년에 대비하여 향후 10년의 중점 과제로서 가톨릭 간호사들의 영성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려고 합니다. 강의와 세미나는 물론 가톨릭 간호사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영성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이 밖에 들려주고 싶은 것이 더 있으시다면...

협회 로고를 홍보하고 싶습니다. 가운데 주황색 십자가는 복음과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주황색은 색채 심리학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고 남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돌아보고 주님이 하셨듯이 남을 따뜻이 사랑한다는 뜻이죠. 우리 협회가 추구하는 사랑의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복음 실천의 마음을 푸른색의 사람이 가슴 가득 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품고 품어서 같은 정신을 가진 인재와 사람을 키워 나가고 양육하겠다는 의지의 마음입니다. 가톨릭 정신을 이어 국민 건강 및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협회의 의지를 잘 드러내주는 상징적 의미죠.

‘협회가’도 자랑하고 싶네요. 평협 단체 중 협회가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1999년 협회가를 응모하여 김주영 수녀의 가사를 일부 수정 채택하였고, 작곡가 김충희 수녀에게 곡을 받아 완성한 뒤 지금까지 총회에서 애창하고 있습니다. 



▲ 협회가



▲ 로고

“이존창의 집에서는 지식을 채우고 원동지의 집에서는 배를 채운다”

박종악은 이존창의 본관은 경주였고, ‘단원’(端源)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다며 그의 고향 여사울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다. “이른바 호동(여사울)이라는 곳은 100여 호나 되는 큰 마을인데 두 고을의 땅으로 나누어집니다. 20여 호는 예산 두 천면 호동리(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이고 80여 호는 천안 신중면 호동리(현 신암면 신중리)입니다. 그 중에 요술(妖術)을 하지 않는 자는 20호 안팎에 불과합니다. 예산 호동에서 요술을 하지 않는 자는 6~7호, 천안 호동에서 하지 않는 자는 10여 호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한편 천주교를 배척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이재기(李在璣, 1759~1818)가 쓴 일기형식의 『눌암기략(訥菴記略)』에도 이존창의 기록이 있다. 신서파(信西派) 남인들에게 사흉팔적(四凶八賊)으로 불렸던 그는 “이존창이 사학을 배웠는데 점차 고명해져 충청도 사람들이 대주교라 불렀으니 참으로 이른바 청출어람이다.”라고 적었다.

이존창은 뛰어난 능력에 사람들 마음을 끄는 특별한 재능까지 겸비하였다. 그의 주변에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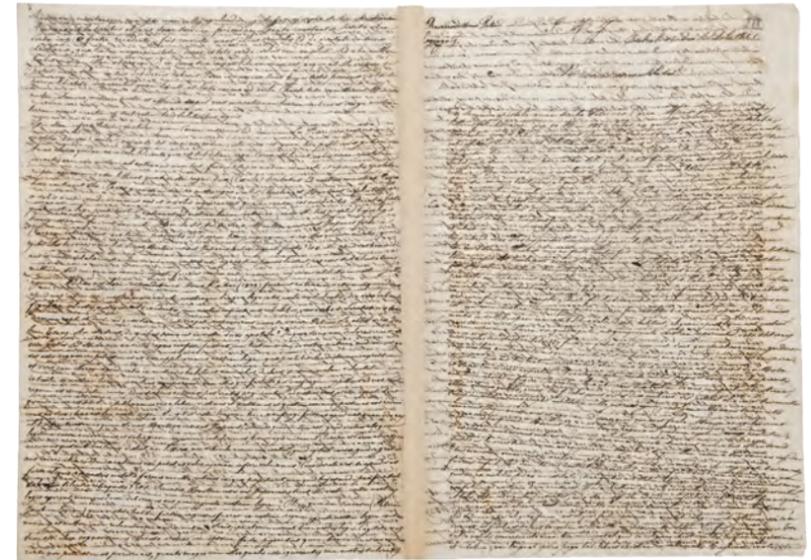
마다 교우 수가 늘어났고 이웃 모든 고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 바람에 그의 집은 항상 손님들로 넘쳐났다. 그래서 교우들은 “이존창의 집에서는 지식을 채우고 원동지의 집에서는 배를 채운다.”는 말들을 하곤 했다. 원동지는 홍주 응정리(현 충남 당진 시 합덕읍 성동리) 출신의 원시보(야고보, 1730~1799)로 부유한 교우였으며, 모든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기로 유명했다.

진짜 사제의 탄생

“1791년 이후 그 이름이 널리 퍼져 있던 이단원(이존창)도...여러 번 괴롭힘을 당한 끝에 결국 공주에 갇혔다. 거기서 겪은 형벌은 모르지만 그도 흔들리고 말았다.” 이 대목에서 다블뤼 주교는 “오 참된 신앙의 증거는 얼마나 드문가!”라고 탄식했다. 박종악은 형조에 올리기도 전에 정조에게 이존창의 굴복을 알리는 「장계」를 베껴 보냈다.

정조는 박종악에게 “그가 완전히 돌아온 후에 석방하라.”고 하였으나 이존창은 12월 5일에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존창은 배교를 뒤로하고 즉시 수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천안 인근 지역에 너무 많이 알려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다블뤼 주교는 『비망기』에서 “가족과 친척들과 작별을 고할 때 마을의 300여 가구의 주민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으며 저마다 아버지와 형, 친구를 보내는 듯했다.” 주교는 “마치 선교사를 떠나보내는 상황에 견줄 만하다.”며 감동적이고도 애통하다고 표현했다.



▲ 최양업 신부의 편지(1851년 10월 15일자, 절골에서 르그레주와 신부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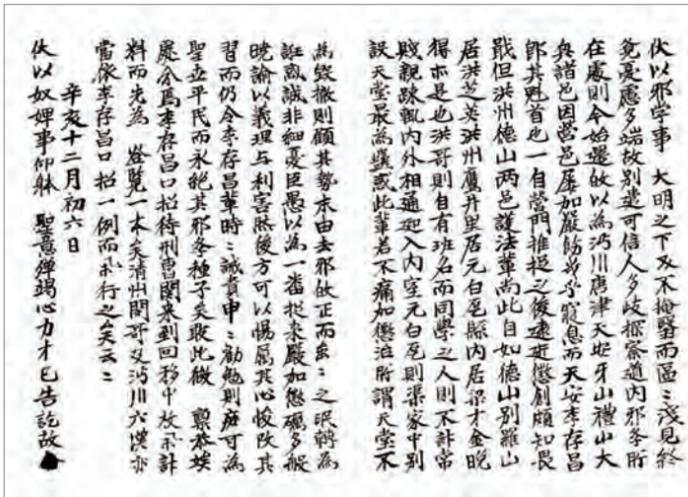
이존창은 열심을 되찾아 선교에 몰두했다. 주문모 신부를 만나 곁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 신부는 그에게 “네 모든 악행, 그리고 권한도 없이 성사를 마구 집행하였으니(가성직제 당시 신부로 활동했다) 어떻게 죄를 속죄할 수 있겠는가. 순교만이 너를 용서받게 할 것”이라 말하곤 했다. 그래서 그는 벽차고 고된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맡겼으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끊임없이 순교를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루도비코 곤자가는 다시 공주로 이송되어 감영 옥에 투옥되었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고 서울로 이송되어 의금부에서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4월 10일(음력 2월 28일)에는 해읍정법(該邑正法, 고향으로 보내 처형하여 그곳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판결)의 명에 따라 공주로 이송되어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42세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배교하였으나 회심하여 탁월

하고 열성적으로 살았던 평신도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기록이 남아 있어 다행스럽다. 거기에 한 자료를 더 보탠다면 한국천주교회의 두 번째 사제인 ‘가경자’ 최양업 신부가 남긴 편지이다.

“이존창의 집안이 처음에는 모르고서 가짜 사제를 냈으나 나중에는 진짜 사제를 내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딸들에게서 두 명의 사제(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의 딸 이 멜라니아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조모이고, 저의 모친 이 마리아는 이존창의 사촌누이 멜라니아의 조카딸입니다.”



▲ 박종악이 정조에게 올린 「장계」. 1792년 12월 2일자 편지 별책에 적혀 있다.



▲ 이존창의 고향 여사울(현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중리)에서 출토된 성해동(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소장)

## 나의 신앙 선조 나의 부모님



김승욱 토마스 아퀴나스 /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세례식



▲ 세례식 기념

제가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신앙심이 깊으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일마다 성당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성당에 대한 저의 첫 기억은 본당이었던 절두산 성당의 측면 긴 계단과 입구에 놓여있는 순교자상, 그리고 성당 안에 걸려 있던 대형 십자고상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일요일 아침, 어린이들이 늦잠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아침 8시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일요일 아침은 참으로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뒤로하고 성당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사 시간은 왜 그렇게 길고 지루한지, 주일 학교는 왜 또 그렇게 가기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미사 마지막에 본당 주임이셨던 김몽은(요한) 신부님이 “미사가 끝났으니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시면 “아휴... 정말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연발했던 기억납니다.

제 아버지는 저와 마찬가지로 또한 신앙심이 깊으셨던 친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도 언양으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에밀 보드뱅(Emile Beaudvin) 신부님이 지으신 언양 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고3 때 돌아가신 제 친할머니(안나)의 기억이 가득 담긴 이 언양 성당은 아직도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사신 친할머니에 대한 저의 기억은 그분께서 주일 성당 미사에 참석하시기 위해 곱게 옥색 한복을



▲ 언양 성당

차려 입으시고 성당으로 가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언양 성당에 다니신 아버지는 옛날 천주교 규정대로 차가운 성당 바닥에 꿇어앉아 주모경(主母經)을 라틴어로 외우셨다고 합니다. 1930년대, 온 나라가 너무도 가난하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그 시골에 제대로 된 교통시설이 있을 리 만무했기에 집에서 성당까지는 항상 걸어 다니셨다고 하는데,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추운 겨울, 어린 나이에 성탄절 자정미사에 참석하러 집에서 성당까지 가려면 너무도 멀고 추워서 ‘이럴 때는 불지옥이라도 잠깐 들러 걸볼 좀 찍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셨다니 참으로 어렵게 다니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추억으로는 본당 보드뱅 신부님이 미사주는 항상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쓰셨다는데 어린 나이에 복사(服事)를 하면 성체성사 시간에 성당에 퍼져나가는 그 특유의 와인 향기가 기억에 오래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이후, 부산 동래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신 아버지는 이모집에 머물며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 부산진 성당에서 나중에 예수회 회원이 되시는 안병태 신부님과 함께 성가대 대원으로 활동하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모부 또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한국 최초의 예수회 회원인 김태관 신부님의 친형이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아버지, 즉 친할아버지(요아킴)께서는 아버지께서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친할아버지



▲ 첫 영성체 기념



▲ 김태관 신부님 흉상 앞에서

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할아버지 하면 항상 아버지의 이모부(이모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한없이 선량하기만 하셨던 그분께서는 항상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연구하는 재야의 성서학자로서 집안에서도 신앙생활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그분께서 규범을 정해주신 게 기억납니다. 그때만 해도 천주교는 타 종교에 비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교회법이 많고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인지 모를 경우 항상 부모님께서 이모할아버지에게 여쭙어 보던 기억납니다. 어릴 때 난감했던 일 중 하나는 성체성사 전에는 공복재(空腹齋)를 지켜야 하는데 당시는 생수의 개념이 없을 때인지라 집집마다 보리차를 끓여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분 해석으로는 보리차는 음식으로 분류되므로 성체를 모시기 전에는 마시면 안 된다고 해서 일요일 아침마다 갈증으로 고생했던 일도 기억합니다. 그 밖에 사순절 시기 대재(大齋), 소재(小齋)를 지켜야 하는 문제와 연중 지켜야 하는 여러 성사(聖事)들과 축일(祝日)들은 참 어린 마음에는 귀찮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민족의 비극인 6·25 사변 등 국가적 혼란기에 신앙생활과 학업을 이어가던 아버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를 무척 잘하셨답니다. 서울 수복 후, 서울대 의예과에 수석으로 입학하셨고 입학과 동시에 서울대 가톨릭 학생회에 가입하여 섭외부(渉外部) 소속으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영어를 잘하셔서 당시 로마로 보내는 영문편지를 도맡아 작성하셨는데 의예과 부장이었던 유흥렬(라우렌시오) 교수님께서 이를 눈여겨보시고 기특하게 여겨 당시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던 장면(요한) 총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장면 총리께서는 어려운 조국의 상황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미국에 보내 선진 지식을 습득하게 하려는 열망이 있으셨고 아버지 또한 미국에 가서 공부

를 하고 싶어해서 미국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원래는 전공을 살려 의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었으나 장면 총리께서는 이제 한국에도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여 전공을 정치학으로 바꾸고 학교도 당신께서 직접 미국 가톨릭 예수회 소속의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로 결정해 추천장을 써 주셨다고 합니다.

이후 구호물자를 싣고 온 미국 화물선을 타고 도미하여 학업과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장면 총리께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셨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학교를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로 옮겨 수학하던 중 4·19 의거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던 한인 학생들을 모아 지지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하셨답니다. 이후, 조국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장면 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하셨는데, 이후 5·16 군사쿠데타로 장면 내각이 실각하자 크게 애석해 하셨다고 합니다.

무사히 학업을 마친 후, 가톨릭 계열의 미국 예수회가 설립한 세인트조셉대학교(St. Joseph's University)에 교수로 임용된 후 교편을 잡으시다가, 60년대 말 친할머니의 환갑에 즈음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마찬가지로 가톨릭 계열의 예수회 대학인 서강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강대는 신부님과 천주교 신자 교수님들이 많으셨는데 장면 총리의 차남이자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신 장진(요셉) 교수님도 서강대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셔서 장면 총리와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모교이기도 한 서강대학교는 절두산 성당과, 이후 분가하여 현재 제 본당인 성산동 성당과 함께 제 신앙 생활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준 곳입니다. 제가 유아세례를 받은 곳이 서강대 메리홀 성당이었고, 세례를 주신 신부님이 서강대 교수였던 파렌 신



▲ 파렌 신부님(Fr. Farren, S.J.)과 아버지

부님(Fr. Farren, S.J.)이셨고, 한국 평신도협의회 회장이셨던 박정훈(요한) 회장님을 대부로 건진성사를 받은 것도 서강대에서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1993년 주교회의 인준으로 결성된 한국가톨릭 교수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시고 1997년 은퇴하신 뒤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의 신앙 선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다 보니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그 많은 분들과 함께했던 날들이 하루하루가 주님의 선물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한 영성을 가졌기에 신앙이 생겼다고 한다면 김정일과 김정은의 가르침 덕에 금메달을 땀다고 자랑하는 북한 선수만큼이나 우스운 일이겠지요. 알파고가 아무리 뛰어나도 신앙심까지 학습하지는 못할 것이라 믿기에, 지나온 제 일상의 이야기들이 곧 나날의 신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말을 새삼 되새기게 되는데 저는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대로 따라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에게 언제부터인가 신앙심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고 부질없는 말이지만,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긴,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서강대 방문시 김태관 신부님과 아버지

몰라야 정상이고 모르니까 인생이겠지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세월을 지켜 오는 묵묵한 것들이 집집에는 꼭 깃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인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어느 여성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목화밭 집 딸이었던 외할머니가 손수 만 목화로 시집 올 때 만들어 오셨던 솜이불이, 비단 훔쳐 새로 시침해서는 엄마의 혼수 이불이 되었다가, 목은 솜 곱게 틀어 이제는 자신이 덮고 잔다."라는 사연이었는데 참으로 낯아서 따듯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탐스러워 마치 박물관(博物誌)에 나올 법한 오래된 이야기가 꼭 제 사연처럼 다가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천주교 신앙이란 솜이불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부모님께 물려받아 부모님이 평생 잘 쓰시고, 이제 또 저에게 물려주신 너무도 소중한 내 영혼의 자산. 무신론자인 제 친구들은 저를 비웃지만 저는 제가 천주교 신자인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에서 감사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은 감사한 것이고 감사한 것은 행복한 것이라 믿습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지."라고 비난한다 해도 전혀 화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 정도에 감사했고 그래서 항상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 성지순례를 다녀오다 도양골에서 온 편지



김영숙 리더아 / 순교자현양위원회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2박 3일간의 성지순례를 40여 명이 함께 다녀왔다. 다른 해와 달리 올해의 성지순례는 특별하게 우리 모두 오직 하나만을 바라보았다. 조선의 두 번째 방인 사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만나러 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떠난 머나먼 유학길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부모님의 순교 소식에 아픔도 접어두고,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알 수가 없다. 함께 떠난 김대건 신부가 사제품을 받

고 귀국한 후, 조국으로 돌아오는 귀국 방법을 모색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면 마음 한편이 아려 온다.

드디어 고국을 떠난 지 13년 만에 조국 땅을 밟았지만,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쉴 틈도, 어린 동생들을 만나 정을 나눌 시간도 없이 12년의 긴 세월을 신자들만을 만나기 위해 박해의 위험에 숨어 다니며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우촌을 찾아다니셨다. 해마다 7,000리의 길에 흘린 땀으로 얼룩져 있을 신부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며 최양업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순례를 떠났다.

그러나 5개도 관할지역 그 모든 곳들을 가볼 수도 없고, 대부분은 흔적이 없는 곳들도 많아 지금까지 남아 유지되고 있는 사목지 가운데 귀국하여 첫 번째, 스승 신부님께 보낸 일곱 번째 편지 '도양골에서 온 편지'에 답장을 들고 가려고 한다.

2박 3일의 순례는 명



▲ 충청남도 부여군 금지로 302 도양골성지



▲ 서울 평협 성지 순례 안내장

동성당에 모여 시작기도로 출발하여 부모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동생들과 함께 사시다 체포되었던 수리산 성지에서 미사로 시작했다. 온 가족의 마지막 삶의 현장이며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어 훗날 가끔씩 들려 생각에 잠기시곤 했다고 전해지는 언덕에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배티 성지로 옮겨갔다.

신부님의 사목 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배티 성지에서는 최양업신부박물관을 둘러보았다. 박물관에서는 인근 여러 교우촌들의 역사와 그림으로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함께 그때의 그 시간에 머물렀다.

다시 출발한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신부님께서 머무시며 사목 보고서를 썼던 유서 깊은 부여의 홍산 도양골 교우촌에 멈추었다. 천신만고 끝에 귀국하고 어떻게 몇 달의 시간을 보냈는지 스승 신부님께 보낸 편지를 함께 읽고 묵상하며 주모경을 바치는데, 이 골짜기에서 신앙의 터전을 일구며 숨죽이며 기도하셨을 신자들 모두가 우리를 반겨 주시는 듯 느껴졌다.

숙소로 이동하여 우리 모두는 도양골로 들고 갔던 편지를 최양업 신부님께, 혹은 돌아가서 만날 나에게 써서 보내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의 순례를 끝냈다.

둘째 날은 최양업 신부님이 부제품을 받고 처음 밟은 고국 땅인 군산의 신시도에서 시작했다. 귀국로 탐색과정에서 탐승한 프랑스 배가 거센 풍

랑으로 표류되고 자유롭지 못한 처지로 한 달 동안 기착하며 몰래 조선 신자와도 만날 수 있었던 곳이다. 고국 땅을 떠나는 배를 다시 타고 싶지 않았을 마음이 느껴진다.

다음으로 먼 길을 움직여 충청북도 보은의 깊고 깊은 구병산 골짜기에 자리한 명에목 성지로 향했다. 명에목은 최양업 신부님이 성사를 주고 미사를 봉헌했다고 알려진 사목 순방지로 여덟 번째 편지에 나오는 교우촌이다. 초기부터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모여 살았고, 몇 차례의 박해로 잊혀져 가던 곳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순교사적으로 다시 조성되어 너무나 반가웠다. 그곳에서 잡혀 순교하신 복자들과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미사를 봉헌하고 문경으로 향했다.

문경새재는 최양업 신부님이 경상도와 충청도 지방의 사목방문을 하며 넘나들던 곳이다. 이 길의 2관문 조금 못 미친 곳, 산 중턱에 일명 '기도굴'이라 불리는 자연동굴이 있다. 박해를 피해 교우들과 함께 숨어 지내며 신자들이 십자가를 모셔 놓고 기도하던 곳이라 전해져 안동교구가 순례지로 지정하고 주변을 단장해 놓았다. 머리를 숙이고 앉은걸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굴 속에 우리 모두 모여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 소리 내어 기도했다. 이 기도굴과 이 길을 수없이 넘나들던 신부님은 가까운 진안리의 길 위에서 과로로 쓰러지셨다.

날이 밝고 순례의 마지막 날을 진안리 성지에서 시작하였다. 최양업 신부님은 사목보고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시다 과로에 병까지 얻어 진안리의 주막에서 쓰러지셨고, 소식을 듣고 오신 푸르티에 신부님의 성사를 보고 선종하셨다.

"푸르티에 신부가 그에게 마지막 성사를 줄 수 있을 만큼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그의 입술



박준형 프란치스코 / 서울 구의동 분당 신자

## 성지순례를 다녀오다 나의 기도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기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의 배론 성지(2019년 4월 6일)

에서 아직 새어 나오는 말이 단지 두 마디 있었으니 그것은 ‘예수 마리아’였습니다.” 이 짧은 조선인 신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아직은 보내고 싶지 않은 애절한 마음을 담은 베르뇌 주교님의 편지글을 읽으며 여기에 다다라서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다시 한 번 최양업 신부님을 마음 가득히 담으며 길을 떠나 시신이 운구되어 안장된 배론 성지로 길을 재촉하였다.

배론 성지는 순례자들이 많이 갔던 곳기에 너무 익숙했으나 우리는 도착하며 무엇보다 먼저 신부님의 묘로 달려가 참배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순례를 마무리하는 미사를 봉헌하였다.

어린 나이에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가족과 헤어져 머나먼 타국에서 부모님의 순교 소식에 흘린 눈물과 사제가 되어 돌아오셔서 이 땅의 신자들을 위해 노력하신 힘들었던 그 수많은 날들의 순간순간들을 조금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싶었다. 무엇보다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우리의 순례길을 마무리 지으며 서울을 향해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풍수원 성지와 가까운 산 너머 느루개 마을에 있는 최양업 신부님의 가족묘를 참배하기 위해 잠시 들렀다. 신부님을 사제로 봉헌했던 가족들이 천주학생이로 살아내야 했던 시간은 얼마나 혹독했을지 모두 알 수 없지만, 부모님의 순교 후에 동생들과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잠시 이야기 들으며 신부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죄송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우리 모두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 떠났던 순례의 길을 마치며 신부님이 “저 박해자들이 우리 주 하느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섬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라고 도양골에서 보낸 그 편지의 답을 당신이 이루어 주셨다고 크게 외치며 집으로 향했다.

“지극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가 소망하는 대로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복자와 성인들 반열에 들게 하소서. 아멘.”

1. 매 순간을 걷고 있자니 산다는 게 걷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걸으면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생명들, 그것들이 각자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느끼기란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다. 고결한 삶이 생명의 의미를 추구하는 걸음이라고 가정한다면, 신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그 여정의 최후에서 그분께서 물으시려나. 당신의 위치가 아니라 당신의 자취에 대해서.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직전 나는 지인의 부고를 들었다. 심장마비라고 했다. 비행기에서 눈을 감고 그에 대해 떠오르던 기억들을 헤집었다. 모두가 내일에 대해선 잘 몰랐다. 과거를 걸어오고 오늘을 사는 게 사람이었다. 내일을 알 수 없어서 그토록 기도했을까? 항상 구원을 바랐다. 가장 성스러운 체험조차도 생이 어떤 순간 어떠한 결론을 맺을지 답을 알려주진 않을 것이다. 구원은 기복의 대답이 아니라 아마도 가장 슬픈 질문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순례 내내 이제는 없는 수많은 생명들을 기억하고 또 상상했다.

2. 도착한 그날 익숙하지 않은 중동의 음악이 도시의 밤과 낮설게 어울리고 있었다. 거대한 수녀

원 뒤로 작은 불빛들이 선명한 선을 그려냈다. 새벽을 지나 곳곳으로 해가 쏟아지자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있는 주님탄생성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도시는 그 옛 모습을 저 밑에 숨겨두고 있다. 성모의 집터였던 1층 아래로 석조의 싸한 기운이 올라왔다. 기억 속의 성경 구절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이곳의 날씨는 기묘하리만큼 종잡을 수 없었다. 때때로 하늘은 비를 쏟아 붓고 거주민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처마 밑으로 들어가 잠시



▲ 평화롭게 휴식 중인 예루살렘의 노인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 예수께서 30년을 나고 자란 곳은 그때의 광경을 거의 잃었다. 단지 그로부터 시작된 그의 유산들이 도시 곳곳에 산재했다. 좁은 시장골목에서 본 그리스정교회 성당의 아름답고도 음울한 광경을 잊지 않으려 한다. 이스라엘은 감정의 도시였다. 사랑과 증오, 차별과 멸시, 용서와 화해가 복잡하게 뒤섞인 곳이었다. 누군가는 신앙을 위해 이곳 어딘가로 숨고 누군가는 이 땅 자체가 거대한 사명이며 다른 누군가에게 끝없는 생의 전쟁터이기도 했다. 그렇게 복잡한 인간의 삶과 번뇌가 흘러가는 어디에도 신의 숨결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다. 이곳은 신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는 거대한 사원처럼 평야 위로 혼자 솟아오른 타볼산 정상에 수도원에 앉아 있었다. 그곳으로 비가 그치고 실크 같은 햇빛이 잠시 내려앉았다.

3.

갈릴래아로 향하여 드넓은 호수를 바라본 건 이튿날의 기억이다. 맑은 강 위로 순례자들을 태운 배가 떠올랐다. 고요하고 거대한 호수 가운데로 한참을 나아갔다.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치신 이곳에서는 빵의 기적을 비롯한 여러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화려하게 주조된 성물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한편에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예수의 형상이 주조되어 있었다. 세 번을 물



▲ 드넓은 갈릴래아 호수의 풍경

으셨다고 했다. 일견 사랑의 서사를 그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질문들은 의미심장하다. 이곳의 오래된 관습으로 세 번을 물어 대답이 같으면 그것은 정설이라고 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 번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순례자들은 번민 속에서 헤맨다. 어쩐지 오래전의 일들이 기억 속에 스쳐갔다. 의심 없이 품을 수 있던 사랑에 대한 원초적인 기억들. 그것은 누구에게나 오랜 기억이면서 먼 곳에 있는 바람이었고 근원적인 욕망이기도 했다. 내게도 그랬다. 그 질문이 모든 시간을 품고 있었다. 때로는 그런 사랑의 영속을 의심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불신의 시대에서 질문들은 흩어진다. 하지만 그 파편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다.

4.

태양이 내리쬐고 모래 바람이 한없이 불어왔다. 내내 꼬이던 파리를 손으로 내저으며 젊은 남자가 커피를 타고 있었다. 1달러짜리 커피는 원두가루에 뜨거운 물을 그대로 부은 터키식 커피였다. 특유의 향에 익숙하지 않아 설탕 없이는 도무지 먹기 힘들었다. 요르단의 커피는 대체로 다 이런 식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듯 내내 마셨다. 국경을 넘어온 지 몇시간이 되지 않아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래로 수십 미터가 내려다보이는 황무지 위 절벽에 모래바람이 일렁이는데 이곳도 구약의 성지라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간다. 여기서 장사 좀 한다는 사람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외모 정도는 구별하고 “일 달라”나 “삼 달라” 정도는 말할 수 있다. 본디 유목하는 씨족인 베두인은 누가 찾아와도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사흘을 보호해 준다고 했다. 커피를 내리던 그는 나에게 엄마가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그가 희미하게 웃으며 이야기했던가? 믿거나 말거나. 흰색 벽에는 서툰 한국어가



▲ 터키식 커피를 팔고 있는 요르단의 광야

쓰여 있었다. 그가 결이 보이는 메마른 손으로 커피를 내리는 게 보였다.

국경에선 곤란할 정도로 가난한 풍경이 이어졌다. 그런 이곳에도 성당이 있고 거기서 성모의 핏빛 눈물을 볼 수도 있다. 기적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모습을 초월한 현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들 마음에 이는 작은 물결이 모여 거대한 흐름이 되면, 그것이 기적이다. 해가 질 무렵 거대한 절벽들 뒤로 푸른 초목이 보였다. 절벽에 걸터앉아 물 담배를 피우는 청년들 뒤로 뿌연 수증기가 올라왔다. 태양은 산의 허리에 앉아 빛의 길을 그렸다. 황홀했다.



▲ 물담배를 피고 있는 요르단의 청년들

5.

팔레스타인의 자치지구인 예리코에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가 죽는다는 신호이다.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띄우는 일은 거의 없어서 어딘가는 곧 폭격을 당할 것이라고 들었다. 모두의 믿음이 동등하게 존중받지는 못한다. 서로가 끝없이 믿음의 종착지를 향하여 행진한다. 갈등이 정점에 이르러 싸움이 되고 전쟁이 벌어진다. 전쟁은 사람에게 갖든 믿음의 정점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 사랑은 소멸되어 있다. 오로지 생명이 꺼져가는 신호만 배회한다. 죽은 자의 영역 주변으로는 경계의 울타리가 들어섰다. 무슬림과 유대인들의 경계는 이곳 예리코에선 비교적 불분명하지만 어딘가에는 담으로 둘러싸인 확연한 경계들이 있다. 건물 위 물탱크의 색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숙소 창가 너머로 색이 바랜 천막들과 낡은 건물들, 좀처럼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 보였다. 순례자들은 늘 안전한 길로 다니게 되지만 순례지는 그렇지 못했다. 상처투성이였다. 그리고 도시는 보다 고독해지고 있다.

어딘가에서 수십, 수백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숫자를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좀처럼 알 수 없다. 수십 명이 죽었다는 건 수십 개의 이야기가 사라진 것이라고 언젠가 누군가 내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수십 개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수만 개의 이야기가 탄생할 것이다. 비극은 기억을 통해 되새겨지고 미움과 갈등이 거기서 또 자라난다. 이날은 재의 수요일이었다. 머리에 묻은 재가 가루가 되어 하늘로 떠다니는데 성당 옆 학교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하게 주변을 뛰어다니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6.

금요일이 되자 수많은 이슬람교인들이 사원을 둘러싸고 있었다. 금요일은 이슬람의 안식일이고 다음날인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경계초소에 들어서고 세 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는 긴장이 들어섰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도를 한다. 도시 곳곳에 새겨진 수천 년의 갈등이 유적에 수없이 흔적을 남겼다. 새벽에 숙소 앞길을 통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길을 따라갔다. 기도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유대인 할아버지는 잔뜩 골이 나 있었다. 십자가의 길 끝에서 예수께서 부활한 곳으로, 마침내 순례자들이 도달한다. 차가운 돌에 머리를 맞대고 기도했다. 세속적인 사람이기에 모든 기적의 순간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생각의 파도가 요동치고 삶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차가운 무덤의 돌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침묵을 지킨다. 그 순간 오롯이 남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대답을 바랐던가? 아무런 바람이 없진 않았다. 나는 다시 한 번 생명에 대해 상상했다. 소중한 의미에 대해 깊게 고민했다. 이런 나약함조차 품어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오니 새벽을 지나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 성지 예루살렘의 시가지 모습

7.

다시 텔아비브로 돌아왔다. 이곳 읍빠의 성당에서 막 나왔을 때 느껴지던 삶의 활기를, 생명의 강력한 의지를 잊을 수 없다. 나는 익숙한 공기들을 떠올렸다. 바다에는 바다의 향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걷기도 달리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 위로 오렌지빛 햇살이 스며들었고 얼굴의 근육 위로 얼룩이 그려졌다. 인간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끝없이 기억해 내고 그들의 관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생각이 다다라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나면 익숙한 공기 대신 공허한 마음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 신의 부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에게겐 제가 가진 고유 기쁨과 슬픔이 있다. 나는 이 자리에 없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비어진 어떤 것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 법이다. 자꾸만 기도하게 되었다.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보석 같았던 삶을 서로 함께 노래할 날이 오리라고. 나는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생의 의지가 한없이 신의 숨결 안에서 요동치라고. 

평신도 잡지에서는 성지순례에 대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성지순례에 대한 내용이면 형식과 분량에 상관없이 수시로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clack-hongbo@daum.net이며 채택되면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보내실 때에는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를 원고 뒤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인터뷰

이주사목위원회의 활동

인터뷰: 김 안젤라 수녀 대담·정리: 최태교 편집위원

❖ 이주사목위원회가 어떤 계기로 출범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사목위원회는 교회의 복음 선포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주와 관련되는 사목적 문제에 관하여 교구장을 자문하고, 제반 활동에 대하여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성경과 사회 교리의 정신으로 이주민을 복음화하는 데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도 우리 사회에서의 같은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깨우쳐 권익을 옹호하고 가톨릭 정신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다방면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사목위원회는 사목목표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 교구장의 사목지침과 관련되는 이주 및 다문화 문제에 관한 연구·조사 및 자문
-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남미와 같은 이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 이주 및 다문화 문제에 대한 사회 교리의 연구와 교육·훈련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지원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지원
- 기타 위원회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



▲ 롯데재단 후원 행사 참여



▲ 이주민 자녀 눈썰매장 체험 학습

이주사목위원회는 급증하는 국내 이주민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시급하고 중대해집에 따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구 직제개편 시기에 맞추어 2014년 2월 기존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이주사목위원회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 **조직 구성과 산하 단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주사목위원회는 산하 단체들을 지원하며 기획, 홍보, 후원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과 이주노동자상담실, 6개 민족 공동체, 환자 쉼터, 어린이집, 공부방,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이주여성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노무, 의료, 비자, 출국, 신앙, 자녀문제, 타국 생활에서 느끼는 고충 등 이주민들이 외국에서 근로 또는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그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6개 민족공동체는 그 규모가 큰 공동체부터 소개하면 필리핀공동체, 베트남공동체, 남미공동체, 몽골공동체, 중국공동체, 태국공동체 순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족공동체의 운영 목적이라고 한다면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면서도 단절 없이 미사 참

례, 성사 등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데 있으며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국민으로 구성된 신앙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유대감을 통한 정서적 지지로 보다 활기찬 타국생활을 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다니아집은 환자 쉼터로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살다가 병을 얻게 되었을 경우, 치료 중 요양하는 시설로, 많은

환자들이 회복 후 일터로 복귀하거나 귀국을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과 마고네공부방은 한국 자녀들에게도 열려 있지만 자칫 양육서비스나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 자녀들에게 성장 시기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피해여성 시설인 벚들의 집과 자활지원시설인 사랑의 집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벚들의 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가정 폭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지원, 정서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벚들의 집에서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면 사랑의 집으로 네트워킹되어 그곳에서 한국에서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주거, 자녀 교육 등 제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이 진행되게 됩니다.

❖ **최근에 끝난 대규모 행사나 조만간 있을 행사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주사목위원회의 대규모 행사라고 한다면 연 1회 개최되는 이주민의 날 행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의 날이 9월 넷째 주로 옮겨지면서

올해부터는 행사가 9월로 옮겨질 것이나 작년까지는 4월 말~5월 초 세계이민의 날과 부활시기가 만나는 시점에서 이주민들의 축제이자 부활축제를 겸한 성격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1,000여 명의 다국적 이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며 추기경님께서 집전을 하시고 각 국어로 지원되는 미사와 이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각국의 음식으로 2부 만찬이 진행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주사목위원회에는 필리핀공동체, 베트남공동체, 남미공동체, 중국공동체, 태국공동체, 몽골공동체 등 6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별로 자국어로 진행되는 미사, 성사, 축일행사, 피정 등의 종교활동과 함께 국가별 기념일 축제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에게는 강한 신앙적 유대감과 정서적 지지를 주는 단체 활동이라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 행사보다 더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수녀님께서 이주사목위원회 활동을 해 오시면서 기쁘셨던 일과 안타까웠던 사연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회복지시설, NGO 단체들은 모두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혼재되어 있는 인종주의적 차별반대,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이주민에 대한 환대, 연대, 나아가 유대 등의 거시적 목표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이 길을 잃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거시적 목표를 두어야 함에는 조금의 이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시적 목표들을 염두에 두고 이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실현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효과도 체감하기 어려워 종종 쉽게 낙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이주민들의 소소한 사례들에 그들과 동행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소소한 일들에서의 성취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거시적 목표에도달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감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자녀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아이들과는 다른 외모,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라는 핸디캡, 경제적 어려움, 외국인 엄마와의 속 깊은 의사소통 부재 등등... 그 아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의 차별은 직접 보지 않더라도 쉽사리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던 아이가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자신에게 춤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매진하는 것을 볼 때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2년 전 위원회에서 외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상호문화 교차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소통'과 '성장'을 키워드로 이주민들과 원주민의 소통, 이주여성들의 능력 계발 등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월 1회씩 10회기로 진행한 연간사업이었는데, 한국 요리 3회, 결혼이민자 출신국 5개국의 요리 7회 정도 배정하여 진행한 다문화요리교실이었습니다. 외국 요리 시간에 강사로 활동했던 이주여성들의 활기차고 프로다운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인종주의나 물질주의적 편견 없이 이주민 그들의 고유한 문화의 우수성,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이주민을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친구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고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될 때가 안타깝습니다.

❖ **평신도가 함께 했으면 또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활동이나 봉사가 있으신지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평신도 개개인이 이주민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본당의 구역, 반 단위에서 찾아가는 사목적 배려를 할 수 있다면 좋겠고 이주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본당들은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자리나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사회, 특히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마음을 열고 함께 아파할 줄 알며, 인간의 고통 앞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영적 감수성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적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마지막으로 수녀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지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의 언어나 외모에 대한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역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가 접했었던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 이주민의 유입 시 까리타스 센터에서 총괄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많은 부분의 실질적인 도움은 지역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회는 본당 교우와 이주민들에게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주민들은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소개하며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을 나누게 됩니다.

앞서 난민 유입을 경험 하였던 유럽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는 본당에 다니는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18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모든 시대의 환영받는 이방인이건 거부되는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마태 25,35-43 참조). 주님께서는 더 나은 미래를 찾아 고국을 떠나야만 하는 모든 이를 교회의 모성애에 맡기십니다. 이러한 연대는 출발과 여정과 도착, 그리고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로 체험하는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모든 신자와 선의를 지닌 모든 이와 공유하고자 하는 중대한 책무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현대 이민의 수많은 도전들에 너그럽고 신속하며,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우리의 공동된 응답은 다음 네 동사,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로 구분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현 상황에서 환대하기는 무엇보다 이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목표한 국가에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을 의미하고, 보호하기는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민과 난민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를 위한 일련의 단계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증진하기’는 본질적으로 모든 이민과 난민이, 창조주의 뜻대로 인간을 이루는 모든 차원에서 자신을 환대하는 공동체와 더불어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노력입니다. ‘통합하기’는 이민과 난민의 존재로 생겨나는 문화 간 상호 풍요로움을 위한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통합은 “이민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억누르거나 잊도록 만드는 동화(同化)”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들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을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참된 가치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서로를 잘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레위 19,34). 



▲ 이주민의 날에 봉헌된 제10회 이주민 축복 나눔 미사



▲ 이주민의 날에 선보인 공동체 공연 모습

이야기

## 주보성인과 나 힐라리오



노희석 힐라리오 / 메트로노 치과의원 원장,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인지도, 어둠한 새벽인지 저녁인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자에 올라 저를 안아주고 키가 큰 외국인 신부님 얼굴 앞에 제 얼굴을 눈높이에 맞춰주셨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린 기억이 나고 저는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게 제가 '힐라리오'라는 세례명을 갖게 된 유아세례 순간이었고 그 이후 저는 '힐라리오'가 누군지도, 사실 세례명이 뭔지도 모른 채 가족 친척들이 불러주는 그 이름 '힐라리오'가 되었습니다. 제 생일이 1월 13일입니다. 힐라리오 성인의 축일이 같은 날이라 그냥 붙여졌겠죠.

지금 제 아내 만나와 결혼하기 위해 그간 27년을 담 쌓고 살았던 성당에 다시 가기로 마음을 먹

었습니다. 첫 영성체 교리를 다시 받기 위해 명동 성당에 무작정 가서 교리를 신청하고 6개월간 열심히 교리를 듣고 드디어 첫 영성체를 하던 순간 솟구치던 감격의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견진성사도 하고 지금은 대자 5명을 두었습니다. 성당에 나가 봉사도 하며 냉담 중이시던 부모님을 다시 성당으로 이끌어 열심히 신자로 만들었습니다.

제 세례명인 힐라리오. 생소하고 들어보기 어려운 성인입니다. 이제까지 교회생활을 하며 한 두 명 정도 본 듯하고요. 저는 '힐라리오' 성인이 오랜 냉담 후 돌아온 성인인 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유아세례 이후 오랜 냉담을 풀고 나이 서른이 넘어서 첫 영성체를 받고 가톨릭으로 복귀한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320년경 갈리아(오늘날 프랑스의 푸아티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양친은 그 나라의 귀족이었지만 이교도였습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마음이 곤은 분이라 일찍이 이교의 허무함과 이성(理性)에 배치됨을 깨닫고 진심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그리스도교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오랫동안 동경하며 구하고 있던 종교라는 것을 확신하여, 마침내 세례를 받고 거룩한 신앙심에 북받쳐 그리스도교적 완덕에만 진력하게 되었다는군요.

푸아티에 시(市)의 주교께서 서거하시자 그는 주교의 후계자로서의 최상의 책임자로 인정받아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단자들은 힐라리오 주교를 자기편에 끌어들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성 힐라리오 주교의 신앙은 단호하였습니다. 이단자들의 위협이나 감언이설은 끝내 성공을 못 하고 말았다죠.

결국 그는 모함을 받아 소아시아로 추방됐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는 거의 전부 이단인들에게 침범당하고 있었으나 모든 기회를 이용해 이단자들과 논쟁하고 그의 본래의 웅변과 학식으로써 바른 도리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힐라리오 주교는 오랜만에 임지인 푸아티에 시에 돌아왔고 또다시 이단의 소멸에 노력해 갈리아 전토를 이단에서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는 교회 내의 규율을 확립하고 신앙심의 부흥에 착수합니다. 교회는 갱생의 활기가 충만해 갈리아 사람들은 성 힐라리오 주교의 불굴의 노력으로 굳은 신앙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리우스의 이단도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됩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366년 1월 13일 선종을 하십니다. 교회는 다만 그를 성인으로 공경할 뿐 아니라 1851년에 교회 박사라는 극히 드문 칭호까지 붙여 주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업은 치과의사입니다. 올해로 개업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수업도 하는 겸임교수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오신 분들께 항상 거짓 없이 진실을 얘기하고 그분들이 진실로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어쩌면 제가 '힐라리오'라는 세례명을 받은 그 어린 시절 세례 받던 날부터 저는 그분의 모습을 따르고자 은연중에 노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듯 우리 우리가 가진 세례명에 책임지고 살아가도록 무의식중에도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여된 세례명의 역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한 세례명은 우리 이름에 굳게 자리 잡은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아멘! 🙏



▲ 힐라리오 성인의 서품(출처: BestLatin.net)

##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저런 천하에 죽일 놈!

정성엽 바오로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겸임교수

사람을 죽인 놈이 사회에 다시 복귀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므로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사형을 시켜라.

위 글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닌 얼마 전 있었던 한 살인 사건 기사에 대한 댓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 저는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군중이 외쳤을 때를 상상해 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의 사람으로 태어나 죄가 없음에도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 질투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말이지요.

물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엄한 벌로 다스리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상대로 단죄하는 것 또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얼마 전에 우연하게 다시 본 영화 그리고 내 가슴속 저편에 아련하게 자리잡은 영화 한 편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해에 쏟아지는 영화만, 작은 독립영화를 제외하고도 2,000편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나 왓치등을 포함하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화나 시청각 매개체들의 숫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많습니다.

매일 그렇게 많은 매체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내 기억에 남은 아련한 영화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내 가슴속 저편에 아련하게 자리잡은 영화 한 편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끄집어 소개하겠습니다.



데드 맨 워킹(Dead man walking, 1996)

- 팀 로빈스 감독
- 손펜, 수잔 서랜든 주연
- 제68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수상작 / 감독상, 남우주연상, 주제가상 후보작
- 1996년 베를린영화제 남우주연상 / 전미배우조합 여우주연상 수상



데드 맨 워킹(Dead man walking, 1996)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두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형수인 매튜 폰슬렛과 그를 돕고자 하는 헬렌 수녀. 이야기는 매튜 폰슬렛이 10대 연인 두 명을 납치, 그중 여성을 강간하고 이후 둘 모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에 6년째 복역 중으로 시작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던 매튜는 도움 줄 사람을 찾던 중 헬렌 수녀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헬렌 수녀는 그를 돕기 위해 직접 찾아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수잔 서랜든 역할의 실제 인물인 헬렌 프리젠 수녀는 영화와는 달리 지금도 진짜 범인은 그가 아닌 그의 동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원래 실제 인물인 패트릭 소니어(매튜)는 살인 혐의만큼은 무고하나 그동안 비슷한 수범으로 수많은 10대 여성들을 강간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동생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살인죄를 뒤집어쓴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화에서도 매튜가 아닌 동생의 죄에 대한 누명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반대로 결국 사형집행을 당합니다. 영화에서는 약물주사형으로 죽는 걸로 나오나 실제로는 전기의자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영화와는 달리 패트릭 소니어는 죽기 전 피해자 남성의 아버지에게 사과하나 피해자 여성

의 아버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집행 전 피해자 여성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트릭 소니어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했고, 이를 본 패트릭 소니어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막말을 퍼부었고, 죽기 전까지 양금을 풀지 않

았기 때문에 피해자 여성의 아버지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동생인 에디 소니어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3년, 57세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병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헬렌 수녀의 주장대로 이 사람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끝내 매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동생 대신 죽었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항상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힘들고 각박해져 갑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여 주변을 돌아보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연민과 관심을 가져보는 자세를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 평신도 양서

정리  
김선동 편집위원



### 칠죄종 일곱 가지 구원

황인수 지음 / 성바오로 / 148×210 / 196쪽 / 13,000원

성바오로수도회 황인수 수사가 피정 지도와 방송을 통해 강의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칠죄종은 일곱 가지 큰 죄이다. '죄'는 부담스러운 말이고 피하고 싶은 주제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죄라는 주제에 접근하면서 수도승 영성에 기반을 둔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연결하여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은 죄의 존재를 단지 부담스럽고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곳, 그래서 참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 악마는 존재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디에고 마네티 엮음 / 안소근 옮김 / 가톨릭출판사 / 140×205 / 228쪽 / 12,000원

가톨릭교회는 교리서를 통해 '타락한 천사'인 악마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악마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으며, 특히 악마를 중세 때 이야기거리나 드라마, 영화의 소재로만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은 "악마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한다. 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교황이 된 이후에 한 강론 중에서 악마와 관련된 내용을 엮은 것들이다.

### 타오르는 말씀

로버트 배런 지음 / 전경훈 옮김 / 생활성서사 / 140×200 / 272쪽 / 15,000원

미국 가톨릭교회의 최고 베스트셀러 『가톨릭시즘』의 저자 배런 주교가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선사하는 진정한 묵상집이자 이 시대 사목자들에게 제안하는 강론의 귀감서이다. 이 책은 '하느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머무는 삶', '거룩한 사람들[聖人]', '신앙과 문화' 등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들을 성경에 비추어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하느님 말씀이 이 세상에서 타오르게 한다.



### 하느님의 생명, 예수님의 숨결

서공석 지음 / 분도출판사 / 150×225 / 456쪽, 472쪽 / 각권 15,000원

서공석 원로 사제의 복음 묵상집이다. 1권 '하느님의 생명'은 마태오 마르코 복음서를, 2권 '예수님의 숨결'은 루카 요한 복음서를 묵상했다.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언어는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학과 신앙언어는 복음을 성찰하고 해석한 결과요, 복음의 성찰과 해석을 통해 또 다른 복음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음의 근본적 중요성 때문에 복음서와 관련된 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요청하는 바를 쉽게 설명해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인지 명쾌하게 알려 주는 책들은 정작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 두 권의 책은 이러한 기대에 온전히 부응한다.



### 사랑 한 줄기 위로 한 모금

끼아라 루빅 지음 / 박영봉 사진 / 벽난로 / 125×187 / 160쪽 / 13,000원

포콜라레 운동의 창설자 끼아라 루빅의 짧지만 강렬한 묵상 구절에다 대구대교구 박영봉 신부의 꽃 사진을 곁들여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는 삶의 심포 같은 책이다.



###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

김태우 지음 / 바오로딸 / 148×192 / 332쪽 / 14,000원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오늘'을 산다. 누군가에게는 결전의 날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 받은 아픈 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빛나는 날일 수도 있다. 나의 오늘은 어떤 날일까?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인연과 소소한 사건들을 저자의 영적 섬세함으로 아름답게 풀어낸 사목 수필이다. 평범한 삶의 소품들이지만 신비스러움이 담긴 이야기들로서 인연, 이별, 사랑, 벗, 신비라는 제목 안으로 모았다.



### 아! 김수환 추기경 1,2

이충렬 지음 / 김영사 / 152×225 / 1,132쪽 / 22,000원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메시지부터 고비마다의 고뇌와 결단, 불면의 밤과 인간적 외로움, 내면세계와 영성의 완성까지. 한 아름다운 인간의 모든 것을 철저한 사실에 바탕하여 온전히 되살려낸 최초이자 유일한 평전 정본이다. 한국 현대사를 파노라마처럼 생생히 보여주는 360여 장의 사진,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에 대한 답까지 최초로 담았다.

소식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9년 한국평협 춘계상임위원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는 지난 4월 12~13일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2019년 한국평협 춘계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막미사는 광주대교구 옥현진 주교가 집전했다. 옥 주교는 강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웃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살아 있는 동안 모든 것과 화해하고 일치해야 한다.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지를 받아들이는 자세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에게 희생과 나눔 정신을 당부했다.

옥현진 주교는 <다문화라는 말이 가장 싫어요>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한국사회 안에서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알렸다. 옥 주교는 한국사회 내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주민들의

수를 고려할 때,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동체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다문화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교회는 이주민들의 정착과 신앙생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가톨릭 신자들도 이주민들을 하느님 사랑 안에서 한 형제라고 인식하며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첫날 회의에서 각 교구 평협은 교구 내 다문화 센터 운영현황과 이주민 사목 주요 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문화 시대의 평신도 사도직’과 평신도로서 이주민 사목에 어떠한 보탬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며 향후 이주 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좋은 이웃이 되고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방안 모색에 힘쓰기로 했다. 이어서 2019년 확정예산을 승인하고, 한국평협 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평협은 각 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세분화했고, 명칭도 업무에 더 적합하게 변경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더 많은 이들에게 평신도 사도직을 알리고 평협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소통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둘째 날은 회원단체의 2019년 활동 계획과 예정 행사 소개가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검토했다. 한국평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존엄한 인간 생명이므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낙태죄 형법 조항은 남녀에게 함께 책임을 묻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임신한 여성이 소중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입장문을 소록도 성당에서 진행된 파견미사에서 발표하고 봉헌했다. 아울러 한국평협은 춘천교구 지역 내 산불 재난 지역 지원을 위한 위로 성금을 춘천평협 이종명 회장에게 전달했다. 파견미사에서 김정용 신부(광주대교구 사목국장)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공동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애써주시는 한국평협 모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회의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과 소록도 일대를 둘러보며 상임위원회 일정을 마쳤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9 서울평협 회원연수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서울평협)는 지난 3월 22~23일 춘천교구 가톨릭회관에서 50여 명의 회원과 함께 ‘2019 서울평협 회원연수’를 개최했다. 개회미사 강론에서 조성풍 신부는 “우리 모두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봉사하며 하느님께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주님의 도구로서 더욱 잘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말했다.

이번 회원연수에서는 서울평협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별 업무에 대한 토의를 했다. 특별히 평신도사도직연구소는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평신도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해마다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둘째 날은 서울평협 각 위원회의 2019년의 구체적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조직의 순순환을 위해 새로 영입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0주년을 맞아 추기경님의 생명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장기기증을 재인식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마련하였

고, 희망자에 한해 장기기증 신청서를 받았다.

연수 마무리 인사에서 손병선 회장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기도로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셨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크고 작은 일을 준비할 때 일치 안에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회원 상호 간의 소통과 나눔의 자리가 되었고, 더욱 내실 있는 서울평협 조직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되었다.

● 서울평협 성지순례 <도양골에서 온 편지>



서울평협은 지난 4월 4~6일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을 기원하며, <도양골에서 온 편지> 라는 주제로 최양업 신부의 국내 사목지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순례에는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조성풍 신부와 40여 명의 신자가 함께했다.

첫날은 최양업 신부의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묘소와 생가터가 있는 수리산 성지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배티 성지에 있는 최양업신부박물관에 들러 최 신부의 생애와 사목 여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고, 작은 초가집에 마련된 최양업 신부의 사제관을 둘러보았다. 배티 성지를 들른 후 도양골로 이

동했다. 도양골은 일찍이 교우촌을 이룬 곳이며, 최양업 신부가 첫 사목 보고서를 쓴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순례객들은 도보 순례를 하며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최양업 신부님께서 걸으신 길을 함께 걷고, '탁덕 최양업 시성기원비' 앞에서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했다. 저녁 시간에는 도양골에서 편지를 쓴 최양업 신부님을 기억하며 순례객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 최양업 신부와 신앙 선조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일정은 최양업 신부가 부제품을 받고 최초로 밟은 고국 땅 군산 신시도 방문으로 시작하여, 명예목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마지막 순례지로 문경 새재 기도굴을 찾았다. 이 기도굴은 최양업 신부가 박해를 피해 교우들과 함께 숨어 지내며 기도하던 곳이다. 순례객들은 최양업 신부와 교우들이 기도굴을 가기 위해 걸었던 기나긴 길을 직접 걸었다. 그리고 작은 십자가가 마련되어 있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으로 사목 활동을 했던 최양업 신부와 모진 박해 속에서도 끈기있게 신앙을 이어가던 선조들을 떠올리며 묵상했다.

순례 마지막 날은 최양업 신부가 선종한 진안리 성지를 둘러 최 신부가 안장되어 있는 배론 성지로 이동하여 묘소 참배를 했다. 이후 최양업 신부의 동생들 내외와 후손이 묻혀 있는 가족묘를 마지막으로 모든 순례 일정을 마쳤다.

손병선 회장은 "우리 모두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다짐을 생활 안에서 녹여내고,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순례를 준비한 서울평협 순교자 현양위원회와 모든 참가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현재 가경자 최양업 신부는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 중에 있다. 순례객들은 2021년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을 앞두고, 최양업 신부가 시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순례 전 일정을 기도로 임했다.

###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춘천평협 정기총회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종명, 이하 춘천평협)는 지난 3월 16일 춘천교구 가톨릭회관에서 평협 임원, 제단체장, 본당 사목회장 등 7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평협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담당사제 김혜종(요한 세례자) 신부가 '80주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총회에서 이종명 회장의 진행으로 2019년도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 안내, 2018년도 사업보고와 사업결산, 2019년도 사업계획과 사업예산 심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있었다.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기 위한 '춘천교구 설정 80주년 실천다짐'을 결의했다.

교구장 김운회 주교의 주례로 봉헌된 파견미사에서 김 주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존중함을 깨닫고 아끼고 지키자."라고 당부하였다.

#### ● 춘천교구 6.25 순교자 시복시성을 위한 성지순례

춘천평협은 지난 4월 2~4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삶과 신앙을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춘천평협에서는 6.25 순교자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2012년 영남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대전권, 제주권, 경기권, 서울-인천권에 530여 명이 참여하였다. 올해는 일곱 번째로 7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수리산성



지, 다락골성지, 배티 성지 등 13곳의 성지를 다녀왔다.

이번 순례는 '땀의 순교자이신 최양업 신부'가 목회한 지역을 순례하며 최 신부의 헌신적인 사목활동과 순교의 정신을 마음에 담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신앙선조들의 굳은 믿음과, 순교의 삶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임원 워크숍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동빈, 담당사제 이용권)는 지난 4월 6~7일 1박 2일 동안 강화 프랑스 가든에서 상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1월 1일 평협 임원 다수가 새로 임명됨에 따라 임원들 간의 화합과 평협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첫째 날 프로그램으로 교구성지인 갑곶순교성지에서 십자가의 길을 하였고, 이어서 민족화해부 박용준

(안드레아) 부장의 안내로 강화 화해평화센터를 방문하였다. 화해평화센터에서는 김영애(테레사) 센터장으로 부터 북방 유적지 및 1960년대의 시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교동대륙시장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다음으로 교구 주요 행사와 평협 활성화에 대한 토의를 하고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담당 사제 이용권 신부의 미사 집전이 있었으며 혈구산 산행을 끝으로 임원 워크숍을 모두 마쳤다.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2019 상반기 총회장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태경)는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아론의 집에서 각 본당 총회장 1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9 상반기 총회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서 본당 총회장들은 '수원교구 평협 설정 50주년'을 맞아, '예수님 살기, 예수님 따르기'를 신앙생활의 신조로 삼고 '예수님 찬미'를 생활화하는 한편, 쉬는 교우 회두를 통해 주일미사 참여율을 30% 이상 신장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정태경 회장은 '평협 50주년 기념사업 및 50주년사 발간' 설명을 통해, "평협 50년 희년의 한 해를 보내며, 그동안 수원평협과 평신도의 발자취를 기록하여 앞으로 50년 후 우리 후대 신앙인들에게 남겨주겠다."라고 말했다.

1강의는 고잔 본당 현정수 신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를 주제로, 2강의는 조부연 전 꾸르실료 주관이 '봉사하는 평신도'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파견미사

에서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를 하느님이 모인 곳, 하느님 백성 세상을 위한 성사라고 규정했다.”라고 말하며, “하느님 말씀, 거룩한 것을 세상에 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강조했다.

● 2019 수원교구 평협 상임위원 및 임원 엠마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4월 29일 영성지도신부와 1·2대리구 평협 회장, 상임위원 및 임원 15명이 모인 가운데 안산시 옥구공원으로 엠마오를 다녀왔다.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자연과 벗하며 편안한 시간을 갖고 10월에 있을 50주년 행사의 성공을 다짐하였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평신도 회년 기념음악회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주, 이하 원주평협) 주관으로 지난 3월 30일 교구 구곡성당에서 평신

도회년 기념음악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원주평협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후원을 받아 트리니타스 합창단과(지휘 신호철 베드로) 트리니타스 앙상블 연주와 합창으로 성대한 음악회가 되었다. 십자가상의 칠언을 서곡으로 한 테너 임철호(프란치스코), 바리톤 김정석(요한), 소프라노 한경성(체칠리아)의 독창은 지역 교구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해 주었다. 교구장 조규만 주교를 모시고 400여 명의 교구 신자들과 함께한 이번 음악회는 교구 설립 이후 처음 열린 음악회로 지도신부 배도한 신부와 원주평협 임원 및 관련 단체가 계획하고 준비하여 연주자와 관객들이 만족한 음악회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신동주 회장은 원주교구 평신도 회년음악회를 위해 재능을 기부해 준 합창단과 앙상블에 감사의 전했고, 행사에 참석한 내빈과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원주평협 역대회장단 모임 다니엘회

원주평협은 지난 4월 23일 원주평협 역대 회장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배도하 지도신부와 현 회장 및 역대 회장들은 평신도 회년을 지내고 있는 원주평협의 발전을 비롯하여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모임은 현역 임원들을 격려하고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는 훈훈한 자리가 되었다. 원주교구 다니엘회는 역대 평협 회장들과 관계자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현역 임원들을 격려하고 현역 임원들은 조언과 도움을 받고 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의정부교구 각 본당 사목회장협의회 및 평신도사도직단체장 합동연수 개최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호수)는 지난 3월 23일 양주시에 위치한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에서 담당사제 이재화(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신부와 교구 내 본당사목회장 56명, 사도직단체회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 구성의 역사’에 대한 평신도영성연구소 박문수(프란치스코) 소장의 강의와 ‘공의회 정신의 일상적 구현으로서의 시노달리티(synodality)’란 주제로 엄재중(요셉) 연구원의 강의를 있었다.



2일차에는 ‘하느님의 백성 교회론과 평신도사도직’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대하여 경동현(안드레아) 연구원의 주제발표 후 이기현 주교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 폐막미사로 행사를 마감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교구 제단체장 간담회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도용희, 지도 손삼석 주교, 이하 부산평협)는 지난 4월 28일 교구청 지하 1층 중강당(민음실)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 선교사목국장 이장한 신부를 모시고 교구 내 제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연합회 및 단체(직종단체 포함) 총 29개 단체 총 40명이 참석하였다. 부산평협은

격년제로 간담회를 운영하며, 올해가 두 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다.

손삼석 주교는 총평에서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되 건의나 요구사항은 담당사제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교구청 1층 쉼터에서 다과를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 2019년 부산평협 1박 피정 & 성지순례



부산평협은 지난 5월 11~12일 청주교구 감곡성지가길로 영성의 집에서 평협 상임위원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 피정 & 성지순례를 실시하였다.

이날 피정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올해 기해년을 맞이하여 ‘기해박해 180주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손 주교는 특강에서 “우리의 순교자들을 순교로 이끈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백’이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순교의 정신과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성모의 밤 행사는 성모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평협임원단 성지순례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일문, 담당사제 박창균 총대리 신부) 임원단은 지난 4월 27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총대리 신부를 모시고 부산교구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살티공소를 방문했다.

공소에서 순교자 김영제 베드로와 그의 동생 김 아



가타의 묘소를 참배하고 기도를 바친 후 순교 선열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성소의 온상지 언양 성당도 방문하였다. 언양 성당은 70여 명의 성직자와 수도자, 20여 명의 동정녀를 배출한 곳이다. 언양 성당의 곳곳을 둘러본 다음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진목정성지로 이동하였다. 이번 순례는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 정신을 직접 눈으로 느끼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교자들의 거룩한 뜻을 되새기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담당사제 김정현)는 지난 4월 6일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평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 1) 지구 사목회의의 활동 보고 2) 사목임원 단체장 연수 평가 3) 여성연합회 연수 및 피정 보고-여성연합회 4) 교구 50주년 기념행사의 협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사목협의회 및 단체평협 연수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열, 담당사제 김정용, 이하 광주평협)는 3월 16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성당에서 본당 사목협의회 및 교구 제단체 임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가졌다.

연수회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교구장



사목교서 중점사항에 따라 '청소년 친화적인 본당 공동체 건설'이라는 주제로 허아란 연구원(서울대교구 햇살사목센터)의 특강이 있었다. 이날 주제와 맞게 본당의 청소년분과장과 대표교사들이 많이 참석하여 본당 청소년사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 ●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제3기>



광주평협은 하느님 나라 건설과 교회 발전을 위해 복음화와 평신도 사도직을 충실하게 이끌어 갈 평신도 리더를 양성할 목적으로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제3기>를 열었다. 4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하느님의 축성과 생태영성살이' 등 10개의 다양한 주제로 훌륭한 강사진을 초청하여 40여 명의 수강자들이 강의를 듣고 토론·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유항검 평신도사도직축제

5월 11일 치명자산 루갈다광장에서 1,500명의 전주



교구 교우들이 참석하여 요안루갈다 순교현양대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를 마친 후에 평단협 주관으로 유항검 평신도사도직축제의 첫 순서인 '유항검 나눔비빔밥' 퍼포먼스를 시작하면서 오후 행사의 막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평신도 사도직의 모범인 호남의 사도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의 순교자적 삶과 나눔의 정신을 널리 전하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사랑의 교회로서 사랑의 문화를 창달하며, 순교자의 믿음과 사랑, 희망으로 세상을 밝히는 영성을 키우겠다는 다짐을 모두 담아 유항검 나눔비빔밥을 만들어 나누었다.

광장특별무대에서는 가톨릭예술단 주관으로 뮤지컬순교사극 '넘이시여 사랑이시여' 공연이 펼쳐졌다. 한국 순교사에서 '가장 빛나는 진주'로 칭송받는 동정부부 순교 복자 유종철 요안과 이순이 루갈다의 거룩한 신앙과 사랑의 표양을 실감나게 표현한 단원들의 연기로 많은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는 등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또한 평단협 소속 제단체와 시설, 기관, 본당 등에서 참여하여 모두 20여 개의 부스를 설치, 운영하는 가운데 장수사진 무료촬영에 70세 이상의 어르신 40여 분이 참여하였다. 이어 관악동아리 '윈드앙상블'의 흥겨운 연주를 감상한 후에 함께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한마당 축제를 마무리하였다. 요안루갈다제 스무 돌을 맞이하게 되는 2020년에는 전국단위로 범위를 넓혀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평협 임원진 확대구성 및 임시 상임위원회 개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제주평협) 고용삼 회장이 임기 만료로 정기총회에서 재 선출됨에 따라 본당을 대표하는 총회장 4명을 임원으로 추가하는 등 기존 평협 임원진을 27명에서 31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3월 14일 강우일 교구장 주교는 새롭게 임명된 14명의 임원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 임원진에게 교구 발전에 노력해 주도록 당부하였다. 이어진 임시 상임위원회에서는 '3·1운동 100주년과 평협 설립 40주년 순례길 걷기'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또한 평협 임원과 여성연합회임원들이 자발적인 참여하에 '평신도 영성 활성화'를 위한 공부방 모임을 월 1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 ● 평신도 영성 활성화를 위한 공부방 모임 운영



제주평협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평신도 봉사자로서의 역할 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3월 28일 처음으로 평협 임원과 여성연합회 임원

중심의 공부방 모임을 가졌다. 첫 모임에는 문창우 부교구장 주교가 특강을 통해 '소통과 열린 사고', '친교의 영성'을 강조하면서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는 항상 쇄신되어야 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공의회 문헌 공부에 제주교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두 번째 모임은 지난 4월 25일 열렸으며, '하느님 계시에 관한 교의헌장'을 중심으로 그룹을 나눠 심층적인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사제의 날을 맞아 평협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제주평협에서는 4월 18일 사제의 날을 맞아 성유축 성미사를 마치고 난 후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회복시켜주시는 막중한 사명을 다해주고 계시는 주교님을 비롯한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뜻을 담아 간담회를 겸해 오찬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평협 임원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는 두 분 주교님과 교구청 소속 신부님, 수녀님, 원로 신부님, 골롬반회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엠마오 연수원 신부님 60여 분을 초대해서 모처럼 사제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간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3·1운동 100주년, 교구 평협 설립 40주년 기념 순례길 걷기행사 개최



제주평협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각자들의 신념과 용기를 새롭게 되새김과 동시에, 4월 29일 평협이 설립된 지 4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4월 27일 순례길 걷기행사를 개최하였다.

강우일 교구장 주교와 문창우 부교구장 주교를 비롯하여 교구 내 330여 명의 교우들이 함께한 행사에



는 1919년 3월 21일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대한독립만세'를 제창할 수 있었고, 도내 첫 천주교 신자인 복자 김기량 현양비까지 순례길을 걸으면서 복음화의 필요성과, 또한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유익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

● 2019년 제주교구 성모의 밤 행사 개최

제주평협이 주관하는 2019년 제주교구 성모의 밤 행사가 5월 16일 성이시돌 삼위일체 야외 성당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지만 금년에는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이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주제로 3,000여 명에 달하는 교구 내 많은 신자들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찾는 일본 교도 교구 및 국내 타 교구 신자들도 200명 넘게 참석하여 행사를 빛냈다.

행사는 1부에서 화관식과 꽃 봉헌에 이어 미사 후 2부 행사로 묵주기도가 이어졌다. 묵주기도는 천사부대가 앞장서고, 사제단, 신자 순으로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는데, '삼외소 은총의 동산'에 있는 산정 호수를 돌 때는 등불에 비추는 연못의 그림자가 천상을 떠올리게 하는 등 매년 감동을 더해 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 포콜라레 청소년들, 환경 보호와 평화를 위한 '그린 캠프'

한국 포콜라레운동에 속한 청소년들이 지난 5월 5~6일 '환경 보호'를 주제로 1박 2일 《그린 캠프 Green



camp)를 열었다. 서울, 경기, 부산, 전남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70여 명의 남녀 청소년들은 5일 대전광역시 대청호 인근 '로하스 가족 공원'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환경 퀴즈와, 피티병 라벨지 부착에 따른 분리수거 가능 여부에 대한 강연과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6일에는 '일치, 스포츠, 평화'를 주제로 매년 열리는, 세계 포콜라레운동에 속한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의 축제인 『Run4Unity』를 개최했다. 또한 대전 시내에서 평화와 환경보호, 인류 보편적인 형제애를 위한 행진과 플래시몹, 워크숍도 진행했다.

이번 그린 캠프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안 쓰려는 작은 노력을 집에 가서도 계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30년 동안 옆드려 생활한 이웃을 위한 사랑 실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이충원, 이하 한국 빈첸시오회)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외상환자로 30년간 옆드려 지내온 송 요셉 씨를 위한 치료비 모금을 15개 교구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금 도중 송 요셉 씨가 감기 합병증으로 갑작스레 하느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임종 전까지의 모금 금액은 29,940,030원이며, 치료비와 장례비를 제외한 15,620,000원은 유가족에게 전달되었다. 한국 빈첸시오회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하느님 품에 안기신 송 요셉 씨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기를 빈첸시오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였다.

● 강원도 산불로 인한 이재민 긴급지원

한국 빈첸시오회는 4월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재해 재난 소식을 접하고 전체 15개 교구에서 즉각적으로 재해구호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였다. 춘천교구는 협의 회별로 피해를 파악하고, 그 외 14개 교구는 고추장 판매 수익금과 회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간 모금액을 모아 1차로 4월 8일 10,000,000원을 춘천교구 이사회로 보냈고, 2차로 5월 8일 한 달여 간 모금된 14,450,000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모금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빈첸시오인들과 교구이사회, 본당 협의회에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5월 20일까지 추가 모금이 이루어졌다.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2019년 성령쇄신 전국대피정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회장 윤영수, 담당 사제 손광배)가 주관한 '2019년 성령 쇄신 전국 대피정'이 지난 3월 16일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낙태법을 유지하여 태아의 생명을 구하십시오'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피정은 낙태의 사회적 해악과 생명의 존엄성을 함께 되새기는 한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자리였다. 전국 각지에서 5천여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참석, 묵주기도와 찬미, 율동과 강연, 폐막미사로 성화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장인 손희송 주교(서울 대교구 총대리)는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 철든 신

양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시며, 신앙은 그 부르심에 순명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총원장 오웅진 신부는 “미혼모들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미혼 모자를 위한 쾌적한 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라며 많은 신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영수 회장을 비롯하여 5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폐막미사 후 ‘태아의 생명을 살리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합리적 판단을 해 주기를 기도했다.

##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 • 성모의 밤 개최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단장 김문식 프란치스코, 담당사제 조현권 스테파노)는 5월 1일 교구청 경내 성모당에서 성모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성모님께 드리는 신심행사와 2부 신심미사 봉헌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신심행사에서는 묵주기도(영광의 신비)를 바친 뒤 각 꼬미시움별로 꽃 봉헌을 하였으며, 어머니께 드리는 글 낭독이 이어졌다. 대구 가톨릭 남성합창단의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 공연에 이어 전 단원을 대표하여 김문식 단장이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를 봉헌하고 까떼나를 바치며 미사를 준비했다.

2부 미사는 장신호 보좌주교 주례,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신심미사’로 봉헌했다. 강론을 통해 장 주교는 “올해 교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교와 영양교우 회두를 위해 레지오 단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교구의 용서와 화해의 해에 “루르드의 성모님께서 당부하셨듯이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며’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성모님께 간구”하도록 단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3,000여 단원들이 함께하여 성황을 이뤘다.

##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 •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사순절 피정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대표회장 최규하, 담당사제 박병준)는 지난 4월 13~14일 서울 우이동에 있는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주제로 ‘2019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부활 맞이 사순절 피정’을 개최하였다.

이번 제27차 연례 피정세미나에는 서울(회장 최규

하), 대구(회장 이종길), 광주 관구 교수협의회(회장 장경식)에서 총 51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문창우 주교는 ‘교종 회칙 <찬미 받으소서>’라는 주제의 특강을, 박병준 신부는 ‘신앙의 본질 -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사랑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한 두 차례의 특강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영성을 살피었다. 아울러, 첫날 개최된 총회에서는 회무 보고와 2019년도 예산 및 사업, 회칙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협의회

### • 3월 대표자 회의



지난 3월 16~17일 1박 2일 동안 가톨릭노동청년회 노랑진 본부에서 전국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15명이 참석하여 1월 정기총회 이후의 활동에 대해 각 교구별로 사업보고를 했다. 이후 전국협의회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가 이어졌으며 안건 나눔으로 평신도 동반자 양성교육 수료 및 피정, 국제 양질의 노동의 날 캠페인 방법, 하계수련회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며 결정된 안건들은 가톨릭노동장년회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전국대표자 회의 때마다 돌아가면서 교구별로 간식과 뒤풀이 음식을 마련하는데 이번에는 인천교구에서 준비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풍요로운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이날 회의에는 가톨릭노동장년회 담당사제 이주형 신부가 함께했다.

##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 • 2019년 제1차 상임위원회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25~26일 마산교구청과 마산가톨릭교육회관에서 전국 15개 교구 여성연합회(위원회) 회장들이 모여 상임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4월 정기총회 준비에 대한 논의와 거제도 윤봉문 요셉 성지(성지담당사제 정윤호)를 방문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 •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제45차 정기총회 및 제37차 연수회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4월 23~25일 수원교구 성 라자로마을 아론의 집에서 전국 15개 교구 여성 100여 명이 모여 제45차 정기총회와 제37차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첫째 날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개회미사를 집전하고, 특강에서 부활하신 주님 은혜가 모두에게 가

독하기를 바라며 축복을 했다.

둘째 날은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주제로 조원기 신부의 특강이 있었다. 조 신부는 "생명도 봉사의 소명도 은총도 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자."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원 북수동성당 성지순례와 화성행궁을 탐방하며 옛 조상들의 가능할 수 없는 높은 신앙심과 조선시대의 정조 임금의 효도에 대해 감동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셋째 날 총회에서 한가협 담당사제 김정용 신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 마리아의 여러 면모들을 교회와 세상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전국의 가톨릭 여성들이 주변에 빛이 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역할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가협 전임 회장(김명자 소화 데레사)은 "크고 작은 일의 과정에서 개인이나 교구를 뛰어넘어 보여 주신 회원들의 힘으로 회장직 소임의 임기 2년이 늘 행복했다."라며 주님께 영광 찬미를 드린다는 이임 인사를 했다. 끝으로 이번 총회에 참석한 전국 15개 교구 모든 회원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며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제23대 회장으로 유경희(데레사, 전주교구), 부회장에는 고승애(아녜스, 청주교구) 자매가 선출되었다.

---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 ● 2019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이하 병원협회, 의료협회)의 2019년 정기총회가 2월 15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데레사)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협회장 문정일 교수와 보건사목담당 유수일 주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이경수 신부 포함, 의료협회 임원 32명(전국 40개 회원병원 대표 및 직능단체 대표)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협회와 병원협회의 2018년도 사업



보고와 결산보고를 사무총장 윤호중 교수가, 감사보고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홍승모 몬시뇰이 발표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전원 찬성으로 승인하였다.

또한, 신임 포항성모병원장 최순호 수녀가 의료협회와 병원협회의 감사직을 승계하는 안이 가결되었으며, 이미 2018년 11월 2일 정기이사회에서 확정되었던 오는 2019년 10월 25~26일 양일에 걸친 병원협회 · 의료협회 정기세미나 및 정기이사회 의 인천 개최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끝으로 의료협회 임원의 만장일치로 2020년 정기총회는 2월 14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3년 주기로 기념하고 있는 제28차 세계병자의 날 행사와 함께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 ● 2019년 제1차 중앙이사회

3월 16일 한남동 끈벚뚝알 피정의 집에서 2019년 전국피정 준비위원을 위한 피정 후에 제1차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중앙이사회가 진행되었다. 중앙이사회 주요 안건은 2019년 행사에 대한 점검 및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40주년 기념 행사에 관한 논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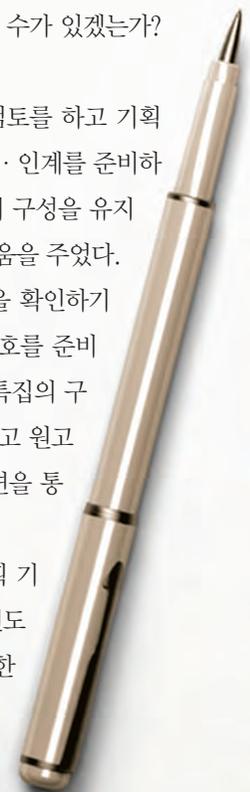
# Editor's Letter

1월 남미 출장 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받아보니 한국평협 회장께서 통화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었다. 회의하러 남미에 있는데 국제전화를 걸어 논의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지 여쭙니 귀국해 만나 이야기를 하여도 좋다고 대답하셨다. 귀국 후 약속을 잡아 한국 평협 회장실을 방문하니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여 홍보소통위원회를 신설하였는데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과 위원장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주저하였더니 큰 부담을 갖지 말고 정보화와 홍보에 대한 업무와 정책을 담당하면 된다는 설명에 승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는 아주 중요한 업무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계간지 평신도 편집장을 맡아 발간해야 하는 일이다. 이미 15년이 넘는 기간 지속되어온 잡지의 제작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인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정보화 업무라고 생각한 나에게 주어진 전혀 다른 임무! 그러나 이리도 어려운 일이 나에게 벌어지다니 하고 아무리 탄식을 해보아도 이미 앞질러진 물이고 떠나간 열차와 같은 상황이었다. 그때 나에게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42). 예수님께서 미래를 예측하시고 하신 말씀이지만 주어진 운명을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어찌 내게 주어진 업무를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편집장이라는 어려운 직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홍보소통위원회의 위원 구성 작업을 진행하면서 평신도 잡지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고 기획 위원회로부터 인수를 시작하여 여름호 편집부터 진행하기로 하였다. 막상 인수·인계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어려운 사항이 하나 둘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구성을 유지하고 일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는데 편집위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원고를 정시에 접수하는 것이 발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에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원고 도착상황을 공유하여 커다란 문제없이 여름호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되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특히 특집의 구성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한국 평협 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원고의 작성과 교구장님의 인터뷰에 도움을 주신 대전 평협 김광현 회장님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번 호부터는 편집위원의 수효를 확대하고 기획 기능과 사전에 원고를 준비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평신도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도 적극 환영하며 평신도의, 평신도에 의한, 평신도를 위한 잡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올림



##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0723@naver.com](mailto:clak0723@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 명예기자 명단(2019년 6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춘천평협	이정란	미카엘라	kino70@hanmail.net
대전평협	윤정분	아네스	tjclass@hanmail.net
인천평협	장영철	아우구스티노	kgph@cainch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단협	김현재	바오로	pwrsave@naver.com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안동평협	신춘덕	로사	s9581@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단협	유광용	대건 안드레아	teleto60@naver.com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꾸르실료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hwjin70@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최석균	마태오	maongchoi@hanmail.net
성빈첸시오아바로회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서선미	로사리아	cmi1021@hanmail.net